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한국

경희한의원

감기 / 성장 / 관절통 / 교통사고

월~토 벨뷰 425-818-8248, 11418 NE 19th St (OL 병원 위)
 예약필수 린우드 425-640-7585, 3333 184th St SW (H Mart 옆)

JP INSURANCE 박정연보험

자동차, 사업체 보험, 메디케어

Tacoma 253-228-5295
 Federal Way 253-335-3895

JOO FAMILY CLINIC 주 패밀리 클리닉

• 소아진료 • 부인진료 • 보톡스, 필러
 • 성인진료 • 노인진료

Open Hours
 Mon: 9am-6pm
 Tue-Fri: 8am-6pm
 Sat: 8am-1pm

425.409.9247 kk@joofamilyclinic.com
 www.joofamilyclinic.com
 22618 Hwy 99, #106 Edmonds, WA 98026 (부한플라자)

세상의 모든 소식 Haninsosik.com



상업부동산법 · SBA · WA Saves · 절세까지...한인 자영업자 3차 세미나 성료

ES Berry Law · 이스트웨스트뱅크 SBA · 코람데오 · 뉴욕라이프 4인 강사진 무대

"WA Saves 2027년 시행 임박...워싱턴 상속세 면제 300만 달러뿐, 대비해야"

워싱턴주 한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워싱턴주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 은퇴 및 재정 3차 세미나'가 마더스데이 전날인 9일 페더럴웨이 1가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ES Berry Law PC 오스카 양 변호사, 이스트웨스트뱅크 에리카 리 SBA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코람데오 파이낸셜 서비스 석승진 대표, 뉴욕라이프의 김수현 재정전문가 등의 지역 한인 전문가 그룹과 한인 언론사 미디어한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사진은 세미나 모습.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관련기사 Page-8>

하나통운

THE ONE LOGIS, theonelogisllc.com

후회없는 선택, 꼭 비교해 보세요!

워싱턴주 최대 한인운송업체 / 한인이사인력 운영
 • 택배 · 이사 · 수,출입운송 · 창고보관 · 자체 통관사 운영

253-872-8181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GOOD DR. CHIROPRACTIC

교통사고 · 디스크 · 만성요통 · 스포츠 상해 · 축만증

두통 · 척추관절 교정 및 전신 통증 치료전문

예약 전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Lynnwood, WA 98036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 · 광고접수
 광고문의 206.779.5382

박선 부동산

253.241.2307
 sunpark93@gmail.com

Bellevue, New Castle, Renton, Federal Way, Auburn, Kent, Tacoma, UP, Puyallup - 아름다운 집을 소개해드리고 팔아드립니다.

Better Properties North Pacific
 Sun Park Real Estate Broker, GRI

스시 카운터 - 순수익 \$17,000 asking ~~\$35,000~~ ▶ \$70,000. 스시 경험자

<p>Tacoma</p> <p>\$559,950</p> <p>4 bd · 2 ba · 1,913 sqft</p>	<p>Tacoma</p> <p>\$799,950</p> <p>4 bd · 2.5 ba · 2,502 sqft</p>	<p>Puyallup</p> <p>\$512,450</p> <p>3 bd · 3.25 ba · 2,100 sqft</p>	<p>Fife</p> <p>\$524,950</p> <p>3 bd · 2.5 ba · 1,806 sqft</p>	<p>Tacoma \$215,000</p> <p>콘도 방2 화장실 1 개, 페인트, 카펫 냉장고 오븐,세탁기, 건조기, 벽난로 다 새거임</p> <p>3 bd · 2.5 ba · 1,806 sqft</p>
<p>Federal Way</p> <p>\$865,000</p> <p>4 bd · 2.5 ba · 3,210 sqft</p>	<p>Tacoma</p> <p>\$599,950</p> <p>4 bd · 2.25 ba · 1,916 sqft</p>	<p>Federal Way</p> <p>\$991,990</p> <p>4 bd · 2.5 ba · 2,781 sqft</p>	<p>Tacoma</p> <p>\$540,000</p> <p>4 bd · 2.25 ba · 2,023 sqft</p>	<p>"뷰티샵 비즈니스" "스시바" "음식만들기"</p> <p>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p>

Best Choice REALTY

■ 주택

■ 비즈니스

■ 커머셜

■ 상담환영



살때도, 팔때도!



권미경 부동산

253.335.5301

Managing Broker MiMi Kwon

E: mimibestchoice@gmail.com

www.homesnap.com/Mikyoung-Kwon

YouTube 권미경부동산

Facebook: Mimi Kwon
Instagram: Mimikwon

NEW Bellevue \$1,099,950

3 beds / 3 bath
벨뷰 인기 커뮤니티의 첫 매물로 나온 프리미엄 코너 유닛 모델하우스이며, 고급 마감, 2카 차고와 우수 학군까지 갖춘 희소성 높은 럭셔리 타운홈.

NEW Puyallup \$559,500

4 beds / 3 bath · 2,297 sqft
실거주와 투자에 모두 적합한 2,297sf 단독주택. 대용 차고, 프라이빗 백야드까지 갖춘 매물. 현재 월 \$2,800 렌트 수입, 2027년 1월 말까지 리스 유지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가능.

Tacoma \$548,000

New Price

3 beds / 2 bath · 1,582 sqft
잘 관리된 3베드·2베스 램블러, 최신 지붕·주요 업그레이드 완료. 넓은 보너스룸, 큰 마당까지 갖춘 조용한 동네의 즉시 입주 가능

Seattle \$288,000

1 beds / 1 bath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 중심 1920년대 복원 콘도로, 렌탈 제한 없는 1베드+오피스 구조에 입자·수익성·클래식 감성을 모두 갖춘 희소 매물.

Federal way \$1,037,990

5 beds / 3 bath · 2,962 sqft
셰프 스타일 주방과 넓은 수납공간이 돋보이는 매물. 퓨젯사운드 인근 입자로 공원·자전거길·쇼핑시설·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음

Federal way \$1,069,990

4 beds / 2 bath · 2,931 sqft
Mt. Rainier 전망, 에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2층 발코니, 넓은 패밀리룸과 럭셔리 프라이머리 스위트, 뛰어난 생활 편의 입지

Tumwater \$489,000

Sold

3 beds / 2 bath · 1,410 sqft
프라이빗 1.25에이커 단층 주택으로 모던한 전원 라이프를 누리면서도 1-5·쇼핑·코스트코 접근이 뛰어난 투머워 학군 내 희소 매물.

Spanaway \$499,950

Sold

3 beds / 2 bath · 1,680 sqft
게이트 커뮤니티 세도나 내 3베드·2욕실 단층 주택으로, 오픈 플랜과 최근 리모델링을 갖춘 조용하고 접근성 좋은 실거주 최적 매물.

Olympia \$475,000

Sold

3 beds / 3 bath · 1,184 sqft
2카 차고 트라이레벨, 2018년 주요 리모델링 완료로 즉시 입주 가능. 퀴츠 주방, 스테인리스 가전, 미니스플릿 냉난방, 침실별 천장팬 포함. 넓은 펜스 마당·RV 주차·커버드 파티오, 1-5·JBLM·학교·쇼핑 인접.

1,224 Sqft. lease \$2500

18년 한식당하던곳. 장비 그대로 인수 가능,



박 · 쉬나 합동법률사무소

PARK CHENAUR AND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지금 전화하세요

대표전화

253-839-9440

www.parkchenaur.com



김벌리 윤

사무장

24년 이상 경력

253.344.7488



지나 김

사무장

16년 이상 경력

206.498.6040

오피스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사무장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 개인상해

Car Accidents

Personal Injury

법정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능숙한 변호사들!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켜드립니다.

페더럴웨이 오피스:

2505 S 320th St. #100 Federal Way WA 98003
(320가 I-5 옆 검은색 유리빌딩 1층)

타코마 오피스:

3517 6th Ave. Tacoma, WA 98406

coway

코웨이 서비스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1. 점검 서비스 2명

• 방문 제품 관리 서비스(코디/코닥)

2. 설치 및 AS 기사 1명

• 제품 설치 및 배송 & AS 서비스(CT)

3. 특이 사항

- 주부/경력 단절 환영-교육제공
- 유동적 근무 가능

4. 자격 요건

-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운전 면허증 소지자
- 한국어 가능

접수
방법

TEL: 253-220-8893

E-MAIL : cowayseattle@gmail.com

• 직접 방문 : 34012 9th Ave S #C4 Federal Way WA 98003

조선용 보험 에서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안내 - 지금 확인하세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

■ 메디케어 구성 안내

- 파트 A - 병원/입원 보장
- 파트 B - 외래진료, 검진 등 의료 보장
- 파트 C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 (파트 A와 B를 민간 보험사가 대신 관리, 추가 혜택 포함 가능)
- 파트 D - 처방약 보장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처방약 플랜 (MAPD)

- ☞ 파트 A, B, D 보장 ☞ 보험료 \$0부터 가능
- ☞ 최대 본인 부담금 도달 후 100% 보장
- ☞ 다양한 보장 수준과 약 코페이
- ▶ 단, 의사 네트워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 서플리먼트 플랜 조합도 선택 가능

■ 보험 등록 기간

- 초기 가입 기간: 65세 생일 기준 전후 3개월 포함 총 7개월
- 연중 가입 기간 (10/15-12/7): 새 플랜 가입 또는 변경,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
- 오픈 가입 기간 (1/1-3/31): 현재 어드벤처지 플랜 변경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전환 가능, 약보험 등록 가능
- 특별 등록 기간: 이사, 퇴직 등 생활 변화 발생 후 2개월 내 변경 가능

■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 약보험 보조 프로그램

- 자격이 된다면 보험료 보조 가능!
- 듀얼 플랜 가입으로 추가 혜택 제공
- 근로소득이 있다면 수입 기준 완화 혜택

■ 가입 전 확인사항

- 주치의, 병원, 약국 계약 여부
- 복용 중인 약이 모두 보장되는지
- 1년간 약값 총 부담금 비교



조선용 보험 에서는 메디케어 신청부터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425-951-9210

(주내과 옆)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시애틀 한국문화센터, 페더럴웨이 해송식당서 연령대별 한인 싱글모임 개최

5월 23일 첫 모임 시작...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5시 정기 진행

시애틀 한국문화센터가 주최하는 한인 싱글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해송식당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어려웠던 시애틀 지역 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연령대별 맞춤 모임으로 자연스러운 교류 도모

오는 5월 23일(토요일)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5시, 해송식당

(32703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에서 진행되는 이번 모임은 참가자들의 편안한 교류를 위해 연령대별로 나누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20대·30대 그룹과 40대·50대 그룹으로 구분하여 비슷한 연령층끼리 더욱 자연스럽고 공감대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되었다.

이러한 연령대별 구성은 서로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

끼리도 부담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적 부담 줄인 합리적인 참가비

참가비는 20달러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식사가 제공된다. 주최 측은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준비했다”며 “좋은 음식과 함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외식과 모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 속에서, 식사까지 포함된 20달러 참가비는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진솔한 만남 통해 새로운 인연 기대

시애틀 한국문화센터 관계자는 “형식적인 소개팅이 아닌,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따뜻한 모임이 되길 바란다”며 “짜증을 찾고 싶은 분들뿐 아니라 새로운 친구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는 한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참가 신청 및 문의

-행사 장소: 해송식당
32703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일시: 5월 23일 첫 모임 시작 이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5시 진행
-참가비: 20달러 (식사 제공)
-문의 및 접수: 206-759-0125

싱글모임 공고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후 5시

“지치고 외로운 당신을 위로하세요”

미국 생활 수십 년, 이제 당신의 곁을 채워줄 소중한 인연을 만나세요!

이국땅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에 마음 둘 곳 없으셨나요? 사별과 이혼의 아픔을 겪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분들을 모십니다.


- 누가: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중장년 싱글 남녀 ■ 어디서: 새소망교회 (신앙과 관계없이 누구나 환영합니다)
- 무엇을: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과의 대화, 그리고 새로운 인연 찾기다.
- 특징: 편안하고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미 수차례 모임이 있었고 좋은 커플과 좋은 친구사이드들이 탄생할것입니다.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나요? 저희는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끝까지 싸웁니다.



ACC
ACCIDENT CLAIM CONSULTANT

- 📌 **Auto Accident Personal Injury (교통사고/개인상해)**
- 📌 **Immigration Law (이민법)**
- 📌 **Speeding/DUI (속도위반/음주운전)**



경력 많은 전문 변호사 2인이 교통사고·이민법을 집중 대응합니다.

- ▶ 사고 피해,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 ▶ 최대 보상, 끝까지 책임집니다
- ▶ 무료 상담 | 성공보수제
- ▶ 승소 전까지 비용 부담 ZERO

Joseph Sim(Director) : 253-222-8888 after hours WWW.ACCSEATTLE.COM
Main 오피스: 206-414-2750 / 팩스: 888-844-7339 ADLG.FED@GMAIL.COM

시애틀 한국문화센터

— SEATTLE KOREAN CULTURE CENTER —

배우고, 즐기고, 연결되는 공간 ♡



새로운 배움



소중한 만남



즐거운 일상

PROGRAMS



통기타 클래스

기초부터 연주까지, 함께 즐기는 기타 수업



생활영어

일상 회화부터 실용 영어까지



라인댄스 / 줌바댄스

신나는 음악과 함께 건강하게!



컴퓨터 기초

컴퓨터 기본부터 활용까지 쉽게 배워요



재봉 클래스

기초 재봉부터 작품 만들기까지



스패니시 클래스

기초 스페인어 회화

SPECIAL

싱글 모임 ♡

매주 3째주 토요일 5시



📍 **해송식당** 32703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 모집 안내

- ✔️ 수강생 모집 중
- ✔️ 강사 초빙 (재능 나눔 환영)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고 즐겨요!



문의 및 등록
206-759-0125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상업부동산법 · SBA · WA Saves · 절세까지...한인 자영업자 3차 세미나 성료

ES Berry Law · 이스트웨스트뱅크 SBA · 코람데오 · 뉴욕라이프 4인 강사진 무대

"WA Saves 2027년 시행 임박...워싱턴 상속세 면제 300만 달러뿐, 대비해야"

워싱턴주 한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 실무 세미나가 마더스데이 전날인 9일 페더럴웨이 1가 도서관에서 열렸다. 지역 한인 전문가 그룹과 한인 언론사 미디어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워싱턴주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 은퇴 및 재정 3차 세미나'다.

이번 행사는 2024년 벨뷰, 2025년 페더럴웨이에 이은 세 번째 세미나로, 변호사 · SBA 용자 담당자 · 은퇴 전문가 · 재정 전문가 등 4명의 강사진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자영업자들이 실무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세미나 사회는 뉴욕라이프 소속 김수현 재정 전문가가 맡았다. 김수현 재정 전문가는 인사말에서 "마더스데이 바로 전날이라 가족과 식사 약속이 있는 단골 청중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오히려 소수정예인 만큼 알찬 정보를 자세히 다루고 끝까지 함께 한 분들에게는 짝짝 선물도 준비했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 "상업부동산 첫 진입은 멀티패밀리부터"...시애틀 오피스 공실률 36.5% 첫 강의는 벨뷰 소재 ES Berry Law PC의 오스카 양 변호사가 맡았다. 주제는 '2026년 상업부동산법 현황 및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이었다. 양 변호사는 민사소송, 비즈니스법, 부동산법, 가정법, 상속 · 리빙트러스트 분야 전반에서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상업부동산을 멀티패밀리(다세대), 리테일, 오피스, 호스피탈리티, 인터스트리얼 · 헬스케어 등 크게 5개 카테고리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워싱턴주 상업부동산 시장이 팬데믹 이후 2022년부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체 평균은 회복으로 보여도 사실은 일부 섹터만 가파르게 회복하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 대비 2025년 워싱턴주 상업부동산 거래액은 43%, 거래 건수는 11% 늘었다. 양 변호사는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한인 투자자들에게는 멀티패밀리를 추천했다. 멀티패밀리는 2024년 대비 2025년 거래 건수가 68%나 늘며 가장 활발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받아주는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며 "아무리 똑똑해도 시장을 거스르면 서핑할 때 파도를 역행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인더스트리얼 플렉스 부문은 거래액이 49%, 거래 건수가 19% 늘었지만, 1평방 피트당 단가는 떨어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반면 시애틀 다운타운 오피스 공실률은 36.5%로 작년보다 더 악화됐고, 미국 평균(약 20%)을 크게 웃돌았다. 이스트

사이드 오피스 공실률도 25% 수준으로 결코 좋지 않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양 변호사는 한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로 "가용 자금을 최대한으로 끌어다 한 곳에 몰아넣는 투자"를 꼽으며, 분산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시애틀 상업임대차 법 개정...24개월 공실 자동 'Substantial Alteration' 폐지 양 변호사는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시애틀시의 최근 법률 변화도 짚었다. 핵심은 'Substantial Alteration(상당한 개조)' 규정 개정이다.

기존 시애틀시 규정은 상업 공간이 24개월 이상 비어 있다가 새 세입자가 들어와 영업 변경을 할 경우, 변경 폭이 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Substantial Alteration 절차에 들어가 빌딩 코드 · 소방 · 접근성 등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급증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자로 시애틀 다운타운 일대 7개 구역의 소형 상업 공간에 한해 24개월 이상 공실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법이 완화됐다. 양 변호사는 "다운타운 공실률 상승에 대응해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열어준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상업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시큐리티 디파짓과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의 한도도 제한됐다. 시애틀의 경우 개인보증 한도는 '기본 월세 2년치 + 임대인이 부담한 테넌트 임프로브먼트(Tenant Improvement) 부분'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테넌트 임프로브먼트가 50만 달러이고 그 중 임대인이 30만 달러를 냈다면, 개인보증 한도는 2년치 기본 월세에 30만 달러를 더한 금액까지다.

양 변호사는 또 시 정부가 부과하는 '일일 페널티(Daily Penalty)'를 가장 위험한 처벌로 꼽았다. "1회성 벌금 1만 달러보다, 매일 500달러씩 누적되는 벌금이 훨씬 더 무섭다. 무시하고 두면 어느 순간 액수가 감당 못 할 수준으로 불어난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2024년 6월 1일부터 1년 이상 기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도 공증(notarization)이 더 이상 효력 요건이 아니게 됐다는 점, 그리고 임차인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 측 변호사 비용이 1만 달러를 훌쩍 넘기는 일이 흔하다는 점도 짚었다. 양 변호사는 청중에게 "이번 강연이 도움이 됐다면 구글 리뷰를 남겨 달라"며, 리뷰 작성 시 평소 무료로 진행하지 않는 첫 상담을 25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 SBA 용자 최대 500만 달러...시민권자 요건 강화로 영주권자는 제외 두 번째 강의는 이스트웨스트뱅크 에

리카 리 SBA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가 맡아 SBA 용자의 구조와 실전 활용법을 설명했다.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는 1953년 설립된 미 연방기관이다. SBA는 직접 대출을 내주지 않고,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내준 대출의 약 75%를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은행은 25% 정도의 리스크만 부담하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 소상공인은 낮은 다운페이로 비즈니스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SBA 용자가 활용되는 분야는 크게 ▲ 운영자금 및 인벤토리 매입 ▲ 비즈니스 인수 · 창업 ▲ 장비 구입 ▲ 상업용 부동산 매입 · 신축 · 재융자 ▲ 수출 자금 조달 ▲ 기존 고금리 대출 재융자 등 6개 영역이다. 정육점, 도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호텔, 주유소, 그로서리, 세차장 등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업종 대부분이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

자격 요건은 ▲ 미국 내 영리 사업체 ▲ SBA가 정한 비즈니스 스케일(규모) 기준 충족 ▲ 주요 지분 보유자(Principal Owner)는 미국 시민권자 ▲ 개인 신용 점수 650점 이상 ▲ 상업용 부동산 매입 · 재융자의 경우 자가 사용 비율 최소 51% 등이다.

에리카 리 매니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규정이 강화되면서 주요 지분 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며 영주권자도 더 이상 SBA 용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용점수가 650점 미만이라도 이민 기간이 짧아 신용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 SBA 7(a)와 504 용자...LTV 최대 90%, 25년 분할상환 가능

SBA 용자의 가장 큰 장점은 ▲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 최대 90% ▲ 상업용 부동산 25년 만기 완전 분할상환, 기타 용도 7~10년 만기 완전 분할상환 ▲ 풍선상환(Balloon Payment) 없음 ▲ 다른 금융 상품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기 · 고 LTV 조건 등이다.

대표적인 두 가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SBA 7(a) 텀 론: 상업용 부동산(CRE) 용도의 경우 LTV 최대 90%, 대출 한도 500만 달러, 25년 완전 분할상환, 변동금리, 3년 조기상환 페널티(첫 해 5%, 두 번째 해 3%, 세 번째 해 1%) 적용. 비(非)부동산(Non-CRE) 용도는 비즈니스 인수, 장비 구입, 테넌트 임프로브먼트, 부채 재융자, 운영자금 등으로 LTV 최대 100%, 대출 한도 500만 달러, 10년 만기, 변동금리, 조기

상환 페널티 없음.

▲ SBA 504 용자: 상업용 부동산 매입 · 재융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다운페이 10%로 매입 가능. 1차 모기지(은행 제공): LTV 50%, 30년 만기 10년 거치, 변동/고정금리, 통상 5년 조기상환 페널티. 2차 SBA 영구대출: LTV 40%, 20년 만기, 고정금리, 10년 조기상환 페널티. 에리카 리는 자가 사용 비율 51% 이상을 충족하면 투자용 부동산이 아닌 자가 사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SBA 용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WA Saves 2027년 시행... "소셜시큐리티만 믿는 시대는 끝났다"

세 번째 강의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코람데오 파이낸셜 서비스(Coram Deo Financial Services)의 석승진 대표가 맡았다. 주제는 워싱턴주 의무 은퇴저축 프로그램인 'WA Saves'를 중심으로 한 은퇴 설계다.

석 대표는 WA Saves가 2027년(시행일은 추후 확정) 워싱턴주에서 시행 예정이며, 캘리포니아의 CalSavers 모델을 따라가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직원이 일정 규모(약 5명 이상으로 알려짐) 이상인 워싱턴주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IRA 형태의 은퇴 저축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는 이 제도를 401K, SEP IRA 등 기존 민간 은퇴플랜과 항목별로 비교 분석해 자영업자들이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석 대표는 강의 후반에서 은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민 1세대처럼 소셜시큐리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스스로 은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는 특히 "2034년경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고갈돼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리스크를 제시했다.

주요 은퇴 리스크로는 ▲ 현금을 은행에만 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5년 후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점 ▲ 헬스케어 및 롱텀케어 비용 증가가 치명적인 재무 위험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투자 원칙으로는 투자자들의 감정 사이클(Cycle of Emotion)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분산 투자(Diversification)와 정액 분할 투자(Dollar Cost Averaging)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권했다.

◆ 워싱턴주 상속세 면제 300만 달러... "Tax-Free 자산 구축 필요"

마지막 강의는 세미나를 미디어한국과 함께 기획한 뉴욕라이프의 김수현 재정 전문가가 맡았다. 주제는 자산 보호와 운용 전략, 절세, 그리고 은퇴 설계였다. 김수현 재정전문가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직접 준비한 '플라워 벌룬(꽃 풍선)'

을 추첨 선물로 내놓으며 청중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워싱턴주 상속세(Estate Tax)에 대한 경고였다. 김수현은 워싱턴주 상속세 면제 한도가 약 3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워싱턴주는 살기는 좋지만 죽기에는 안 좋은 주"라는 멘트로 사전 상속 설계의 시급성을 각인시켰다.

이어 현재 4% 수준인 CD(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율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재정전문가는 과거 제로 금리 시절을 상기시키며, 특히 이자 수익에 붙는 세금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CD의 단리 이자보다, 현재의 양호한 이자율을 띠는(Lock-in)하면서 세금 유예(Tax-Deferred)와 복리(Compound Interest)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Fixed Deferred Annuity'를 매력적인 대안 솔루션으로 소개했다. 다만 과세 이연 상품의 한계도 분명히 짚었다. 김수현 재정전문가는 ▲ 로스 IRA(Roth IRA) ▲ 지방채권(Municipal Bonds) ▲ 생명보험(Life Insurance) 등을 활용한 비과세(Tax-Free) 자산 은퇴 솔루션을 함께 제시하며, 단순한 세금 유예가 아닌 영구 비과세 구조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재정전문가는 끝으로 "2024년 벨뷰, 2025년 페더럴웨이에 이어 세 번째로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캘리포니아의 석승진 대표와 SBA 전문가가 새롭게 합류해 더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회계사와 이민 전문 변호사 등 자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덧붙였다. 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한인들도 언제든지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강사들의 연락처를 함께 안내해 적극적인 상담을 권했다. 세미나는 모든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 및 개별 상담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주최 측은 회계사 · 이민 전문 변호사 등을 합류시킨 차기 세미나도 추진 중이다. <문의 및 상담>

▲ 오스카 양 변호사: (206)979-7081
▲ 에리카 리 이스트웨스트뱅크 SBA 담당: (253)876-5030, Erica.lee@east-westbank.com

▲ 김수현 재정전문가: (253)802-2550
(기사 · 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오스카 양 변호사가 '2026년 상업부동산법 현황 및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리카 리 매니저가 SBA 융자의 구조와 실전 활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뉴욕라이프의 김수현 재정전문가가 자산 보호와 운용 전략, 절세, 은퇴 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코람데오 파이낸셜 서비스의 석승진 대표.



참석자들이 세미나에 집중하고 있다.

맛있고 푸짐한 런치뷔페! 11 AM - 3 PM
정갈한 맛! 포장(Buffet-to-Go!) \$10.95/파운드

\$21.95
11am~3pm



채식·일반식, 수프, 샐러드, 디저트까지! 픽업 주문 시 무료 디저트 제공!
각종 모임과 오피스 파티 케이터링도 예약 가능! 시간을 절약하세요!



블랙 타이거 새우



킹 연어 필레



버터 치킨



생강 새우 코코넛



양고기 커리



망고 치킨 커리

Call: 253-529-9292

EAST INDIA GRILL

31845 Gateway Boulevard S. Federal Way (Gateway Center Plaza)

■ 영업시간 : 일~목 : 11AM ~ 9PM / 금,토 : 11AM ~ 10PM

■ 홈페이지 : www.eastindiagrillwa.com





레지나 채 소장(가운데)이 감사패를 받고 있다.



홍윤선 전 회장(오른쪽)이 감사패를 받고 있다.



레지나 채 소장이 감사패를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서은지 총영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애틀 한국노인회, 지역 봉사자들에 감사패 전달

30년 넘게 복지 사각지대 지원한 레지나 채 소장에 감사 표명 홍윤선 전 한인회장에도 공로 인정...어르신들 위한 헌신에 감사

시애틀 한국노인회가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봉사해 온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인회는 최근 행사에서 킵카운티 재활 프로그램의 레지나 채 소장(가운데)과 전 시애틀 한인회장을 두 차례 역임한 홍윤선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감사패를 받은 레지나 채 소장(가운데)과 홍윤선 전 시애틀 한인회장 외에도 주시애틀 총영사관 서은지 총영사를 비롯, 광종세, 강석동, 홍윤선 전 시애틀 한인회장, 차혜자 전 워싱턴주 여성부동산협회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레지나 채 소장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사회복지사이자 크리니컬 카운슬러로 활동하며, 한인 노인들과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정부 지원 혜택 안내, 한국인 노숙자 및 정신질환자 쉼터 연계, 자립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는 데 힘써왔다.

채 소장은 "어려울 때 누군가 손을 잡아 준다면 세상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며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과거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시애틀 한국노인회에서 시민권 교육 프로그

램을 진행하며 어르신들과 인연을 맺어 바 있다. 당시 교육을 받았던 9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현재까지 노인회에 다수 참여하고 있어 더욱 깊은 의미를 더했다. 함께 감사패를 받은 홍윤선 전 한인회장은 특유의 친밀한 소통으로 노인회를 꾸준히 방문하며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노인회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인사들의 모습. 왼쪽부터 레지나 채 소장, 광종세, 강석동, 홍윤선 전 시애틀 한인회장, 차혜자 전 워싱턴주 여성부동산협회장.

ONDemand KOREA TV Box

우리클리 **Kooli**

ODK BOX 단말기 증정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ODK BOX 서비스를 통해 한국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선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데, 단말기는 \$100에 구매하거나, \$50 보증금을 맡기고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는 1년 구독하시는 분에 한해 **\$100 상당 전용 단말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년 서비스 사용료 또한 240불에서 180불로 할인해드립니다.

ODK BOX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ODK BOX는 셋톱 박스로, 아무런 종류의 TV에 기기만 연결하면, 모든 ODK 콘텐츠를 큰화면에서 리모콘으로 더욱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ODK BOX만의 특별한 혜택
최신/구작 다시보기 + 실시간 + 100개 채널제공
무약정 / 단말기 무료렌탈
All in One(티비,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시청 가능)
온디맨드코리아 PREMIUM 멤버십 제공(동시 시청 최대 5명)

ODK BOX CARE +
친절한 한국어 기술지원, 설치 안내 및 상담, 단말기 무상교체, 안심케어

ODK BOX

FREE

최대 합법 IPTV 한국 방송
지금 1년 서비스 구매하시면
\$100 Smart TV BOX 무료!
온디맨드 프리미엄 멤버십 무료!

\$19⁹⁹/월

KBS **MBC**

EBS **tvN**

SBS **MBN**

JTBC **JTBC GOLF**

CHANNEL **TV CHOSUN**

CBS **comedy TV**

OCN **Mnet**

Billiards TV **+ 10 More**

린우드 : 253-230-7928 (정관장 린우드) / 에드몬즈 : 425-773-3525 (Ace Life USA)
페더럴웨이 : 253-232-9277 (K-Beauty)

이영이보험

- ✓ 곧 65세가 되십니까?
- ✓ 직장보험이 종료 되십니까?
- ✓ 타주에서 이사오셨거나 거주지가 바뀌셨습니까?
- ✓ 파트 D(약보험)으로 Extra Help를 받으십니까?
- ✓ Medicare와 Medicaid를 소지 하셨습니까?

*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스페셜 가입기간에
Medicare Advantage(Part C)나
보충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욱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영이 보험이 여러분의
올바른 메디케어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
상담전문

Licensed Insurance Agent
206.407.8478
206.250.2760
youngyi712@gmail.com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라이선스 보유



A

ALABASTER & PRAUS

CONTRACTING · CONSTRUCTION · DEVELOPMENT

www.alabaster.llc

☎ 무료 상담

(206) 512-0959

한국어 상담 가능

날씨 좋을 때 고쳐야 후회 없다

시애틀 외장공사,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 지붕·사이딩·드라이브웨이·거터까지

Alabaster & Praus | 한국어 상담 가능 | 무료 현장 견적 | 워싱턴주 면허 보유

■ 시애틀의 짧은 '황금 시즌', 놓치면 1년을 기다린다

시애틀의 봄·여름은 집을 손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다. 길고 습한 우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 이 시기에 외장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빗물 침투, 목재 부식, 기초 균열로 이어지는 '눈덩이 수리비'를 감당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외장 공사는 타이밍이 전부"라고 입을 모은다.

Alabaster & Praus 는 바로 이 시즌에 맞춰 외장 전 공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지붕 교체부터 사이딩, 드라이브웨이, 거터(물받이)까지 — 집의 '겉데기'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Alabaster 의 강점이다.

■ 공사별 핵심 포인트

🏠 지붕 (Roofing)

시애틀의 연간 강수량은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다. 지붕 싱글이 낡거나 들뜨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누수는 단열재, 천장, 전기 배선까지 피해를 확산시키기 전에 반드시 선제 대응해야 한다. Alabaster 는 정밀 점검 후 부분 보수 또는 전면 교체를 명확히 제안한다 — 불필요한 공사는 권하지 않는다.

🏠 사이딩 (Siding)

외벽 사이딩은 집의 단열 성능과 직결된다.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패널이 뒤틀렸다면 열손실과 습기 침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신호다. Alabaster 는 다양한 사이딩 소재(파이버시멘트, 비닐, 목재 등)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제공하며, 집의 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최적안을 함께 찾아준다.

🚗 드라이브웨이 (Driveway)

균열이 간 드라이브웨이는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넘어, 시애틀 특유의 겨울 동결-해동 반복으로 균열이 급속도로 확대된다. 적기에 보수하거나 재포장하면 향후 수천 달러의 추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집의 첫인상이자 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간인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다.

🌧️ 거터·물받이 (Gutters & Downspouts)

거터는 집 전체를 물로부터 지키는 최전선이다. 막히거나 처진 거터는 지붕 끝단 부식, 외벽 얼룩, 심할 경우 기초 침수까지 유발한다. Alabaster 는 거터 청소·보수는 물론, K-스타일 및 하프라운드 등 신규 설치까지 모두 처리한다.

■ 왜 Alabaster & Praus 인가

공사는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 Alabaster & Praus 는 워싱턴주에서 시공·개발·신축을 전문으로 해온 팀으로,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특히 신뢰를 얻는 이유다.

- 지붕·사이딩·드라이브웨이·거터 전 공정 원스톱 처리
- 공사 전 무료 현장 점검 및 견적 제공
- 워싱턴주 라이선스 보유, 보험 완비
- 한국어 상담 가능 — 복잡한 공사 용어, 편하게 물어보세요

■ ADU 투자도 놓치지 마세요

단 5% 다운페이먼트로 시작하는 ADU 프로젝트. 뒷마당이 매달 수천 달러를 창출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모합니다. 선착순 30명 무료 부지 진단 서비스 — 지금 전화하세요: (206) 512-0959

☎ 지금 바로 무료 점검 신청하세요

날씨 좋은 지금이 1년 중 가장 현명한 타이밍입니다. 고민하는 사이 시즌은 끝납니다.

Alabaster & Praus | 직통: (206) 512-0959 | 한국어 상담 가능 | www.alabaster.llc



드림투어
Cruise & Travel
꿈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06-200-3113 페더럴웨이 H마트 건너편
(전화/문자 상담 가능)

TALK 카톡으로 빠른 상담하기
실시간상담
드림투어

최저가 항공권 **앗! 항공권이 인터넷보다 싸다!!**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 크루즈 ● 항공권 ● 투어 ● VIP의전 ● 연수 ● 버스대절

도쿄 신칸센부터 설악산 비경까지!

고국/일본 관광 10박 11일

도쿄 > 하코네(온천) > 오사카/고베 > 교토/나라 > 부산 > 울산/경주 > 안동 > 평창/강릉 > 설악산 > 서울

인솔자 동반

- ★ 빠르고 편안한 이동
- ★ 일정 후 고국 방문 연장 가능
- ★ 고국의 향수를 채우는 '팔도 미식 & 전국 일주'
- ★ 전 일정 전문 가이드 및 엄선된 4~5성급 호텔
- ★ 일본의 정취를 느끼는 '특급 온천' 숙박
- ★ 도쿄-오사카 구간 '신칸센' 탑승

\$2,999 + 항공

단, 1회!
10/17 ~10/27

올가을, 가장 아름다운 단풍은 샤를부아에서 만납니다.

캐나다 샤를부아 단풍여행 5일

천섬&오타와 / 생앤캐년&샤를부아 단풍열차 / 올드 퀘벡 관광
몽트랑블랑 최고급 리조트 숙박 / 몽모렌시 폭포&몬트리올

프리미엄
10/14 ~10/18

- ★ 몽트랑블랑 최고급 리조트 숙박
- ★ 캐나다 동부 핵심 관광지 완전 포함
- ★ 자연, 도시, 문화가 모두 담긴 프리미엄 일정
- ★ 샤를부아 단풍열차 탑승
- ★ 가장 아름다운 단풍 절정 시즌 진행

\$1,699 + 항공

대만과 일본을 잇는 명품 크루즈

대만/일본 크루즈 8박 9일

타이베이 > 이시가키 > 미야코지마 > 오키나와 > 이시가키 > 타이베이

인솔자 동반

- ★ 일정 종료 후 한국에서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올 수 있는 일정!
- ★ 크루즈캐빈, 공항트랜스퍼, 기항지투어 포함 노옵션!
- ★ 기항지 투어 전 일정 포함 '노옵션' 프리미엄 여행
- ★ 천연 온천부터 발마사지까지, 완벽한 힐링 코스
- ★ 초대형 럭셔리 선사 'MSC 벨리시마' 탑승
- ★ 크루즈 전후 대만 특급 호텔 숙박

\$1,999 + 항공

드림 스페셜
11/22 ~11/30

스페인 · 프랑스 · 이탈리아 · 몰타 4개국 완벽일주

서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바르셀로나 > 마르세유 > 제노바 > 나폴리/폼페이 > 메시나 > 발레타 > 바르셀로나(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몰타)

인솔자 동반

선착순 디럭스 발코니 ★ 무료 업그레이드 ★

- ★ 정열의 태양과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스페인
- ★ 지중해의 낭만과 남프랑스 특유의 여유로운 감성이 흐르는 남프랑스
- ★ 찬란한 고대 로마의 역사와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를 만나는 이탈리아
- ★ 중세 기사단의 성곽과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감싸는 지중해의 보석 몰타
- ★ 최신식 초대형 럭셔리 선사 'MSC 월드 유로파' 탑승
- ★ 선상 위 화려한 쇼와 액티비티 무제한

\$2,799 + 항공료 포함

THE BEST 드림 시그니처
9/30 ~10/9

국제 크루즈 연맹 인증 크루즈 전문 여행사 드림투어의 Partner 선사





청매실



330g

홍쌍리 청매실 농축액
\$149.99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3g 정도(차술갈 하나)
그냥 섭취하거나
음용수에 희석하여
꿀이나 기타 감미료를
혼합한 뒤 섭취

홍쌍리 청매실 농축액은 정성스럽게 재배한 매실을 씨앗 분리기에서 씨를 분리시키고 100% 매실즙만으로 가용성 고형분을 75% 이상으로 고농축 시킨 후 전동용기에서 숙성시킨 제품입니다.

홍쌍리 청매실원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매실을 올리고당과 7:3 비율로 배합하여 50년 이상된 전통 항아리에 넣어 발효 숙성시켜 만든 매실 원액으로서 몸에 이로운 구연산 등 각종 유기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가족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420ml x 2병

홍쌍리
청매실원 선물세트 2호
\$33.95



1.5Lt

홍쌍리
청매실원
\$54.95



420ml

홍쌍리
청매실원
\$19.95



홍쌍리 청매실



300g

젤리골드
\$5.99



300g

캔디골드
\$5.99

매실의 효능

- 피로회복
- 체질 개선
- 간장보호 및 간기능 향상
- 해독작용
- 소화불량, 위장장애 해소
- 갈증 해소
- 칼슘 흡수율 증가
- 살균, 살충작용
- 만성 변비
- 피부 미용
- 염증 제거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세일즈를 구합니다. Email : twin0418@aol.com

또는 이력서를 가지고 내사바람

안락아도 싸게 파는
신신백화점 8726 South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구입의
문의

월-토: 10AM-7PM / 일: CLOSED

253-582-2975



권정종합보험 메디케어



대표 권 정

- 1. 최고의 서비스 Best Service**
한국어 전용 클레임 서비스
- 2. 최저의 보험료 Best Price**
여러 회사와의 비교로 인한 최저 보험료
- 3. 최고의 회사들 Best Companies**
A 급이상 보험회사들로 견적비교



65세 다가오십니까?

귀하에게 적합한 메디케어 플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올해 65세(1961년생)가 되시는 분들
- 직장보험에서 나와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분
-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 거주지가 바뀐 분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



SBI SEATTLE BEST INSURANCE INC
시애틀 베스트 종합보험

TACOMA OFFICE

9122 SO TACOMA WAY #108 LAKEWOOD, WA 98499
Fax. 253.473.1214
jeonghee@seattlebesti.com

Tel. 253.472.3977

LYNNWOOD OFFICE

18623 HWY 99 SUITE #240 LYNNWOOD, WA 98037
Fax. 425.741.3300
johnkwon@seattlebesti.com

Tel. 425.741.3600



2026 KO-AM 편성표 5월 18일 - 5월 24일

		월 (5/18)	화 (5/19)	수 (5/20)	목 (5/21)	금 (5/22)	토 (5/23)	일 (5/24)					
5		KTV 뉴스					KTV 뉴스			5			
6		김학중 목사	종교				종교	형제 교회		6			
7		KTV 뉴스					KTV 뉴스			7			
8		KO-AM 뉴스					기분 좋은 날	영성 교회		8			
9	40	명성교회	한사랑교회	형제교회	타코마제일침례 교회	명성교회	나 혼자 산다 (재)	기분 좋은 날 (재)		9			
10	20	첫 번째 남자					리디오 스타 (재)	타코마 침례교회		10			
11		오늘 아침					엄마를 부탁해 (재)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실종		11			
12		최고의 산	결혼 지옥 (재)	소라와 진경 (재)	MBC 드라마 (재)	실화탐사대	넷워크 특선	비디오 여행		12			
13		어영차 바다야			놀면 뭐하니 (재)	전지적 참견 시점 (재)		엄마를 부탁해		13			
14		MBC 뉴스 투데이				KTV 뉴스	구해줘 홈즈	KTV 뉴스		14			
15		KTV 뉴스					MBC 뉴스 투데이	놀면 뭐하니 (재)		15			
16		탐나는 TV	엄마를 부탁해	다큐 프라임	다정다감	넷워크 특선	MBC 드라마	MBC 드라마		16			
17		MBC 뉴스 투데이					MBC 드라마	최고의 산		17			
18		MBC 오늘 저녁					놀면 뭐하니	소라와 진경		18			
19		첫 번째 남자 (재)					MBC 드라마	소라와 진경		19			
20		KO-AM 뉴스					MBC 드라마	소라와 진경		20			
21		결혼 지옥	MBC 드라마 (재)	시골마을 이장우	실화탐사대	MBC 드라마	MBC 뉴스	MBC 뉴스		21			
22		결혼 지옥	MBC 드라마 (재)	라디오 스타	실화탐사대	MBC 드라마	전지적 참견 시점	탐나는 TV		22			
23		KTV 뉴스					기분 좋은 날	PD 수첩	기분 좋은 날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	기분 좋은 날	23
24		기분 좋은 날					오늘 아침				24		
1		오늘 아침									1		
2											2		
3											3		
4											4		

* 방송국 사정에 따라 긴급 또는 특별 편성으로 프로그램 편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뉴스, 보도	교양, 다큐	드라마	오락	특집방송	종교
--------	--------	-----	----	------	----



벨뷰 유안루 갤러리서 9개국 60여 명 합동전...한인미술인협회 2년 연속 협력

- ▶ 5월 8일 유안루 갤러리서 9개국 60여 명 작가 참여 개막 리셉션...17일까지 일반 공개
-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KAAW), 2년 연속 핵심 협력 단체로 합류
- ▶ 서은지 주시애틀 총영사 · 콘래드 리 전 벨뷰 시장 · 주의원 · 시의원 등 대거 참석

벨뷰에서 9개국 출신 작가 60여 명이 참여한 제2회 다문화 미술전 '벨뷰가 세계를 맞이하다(Bellevue Welcomes the World)'가 막을 올렸다.

전시를 주최한 비영리 예술단체 예파인아트스(YeFineArts)는 5월 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벨뷰 유안루 갤러리(Yuan Ru Gallery, 12737 NE Bel Red Rd #100)에서 초청 인사 대상 개막 리셉션을 열었다. 전시는 오는 5월 17일까지 일반 관람객에게도 공개된다.

◆ 마지막 대표 "이 사람들 만나려고 합니다"

행사를 진행한 예파인아트스 대표 마지(Margie)는 인사말에서 작품 설치가 시작된 첫날의 일화를 소개했다. 마지막 대표는 "아메일로만 알던 작가들이 수요일에 현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느껴졌다"며 "이런 행사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을 못 만난다, 그래서 이 일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 대표는 한 참가 작가가 자신에게 다가와 "나는 한국인인데 상하이에서 태어났다"고 말을 건넸고, 본인도 상하이에서 태어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그 곁에 있던 또 다른 작가는 "나도 상하이 출신인데,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 출신"이라고 말

했다고 한다. 마지막 대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겠나. 이런 일을 하니 만나게 된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며 "내년에도 이 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안루 갤러리에 자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안루 갤러리 운영자이자 머서아일랜드 시의원인 줄리 시에(Julie Hsieh)도 "오늘 이 자리에는 9개국이 함께 모였다"며 "예술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을 연결한다"고 인사했다. 줄리 시의원은 가정의학과 의사에서 화가이자 갤러리 운영자로 진로를 바꾼 자신을 두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이 나를 살렸다"고 말했다.

◆ 한인미술인협회 · 총영사관 "한국 미술의 정서 함께 나누다"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Korean Artist Association of Washington, KAAW)는 지난해 첫 회 전시회에 이어 올해도 주요 협력 단체로 참여했다. 에밀리 원 KAAW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모든 분이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미술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전시가 여러 문화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서은지 주시애틀 총영사는 "워싱턴주는 기술 혁신의 중심일 뿐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공동체의 거점"이라며 "특히 벨뷰는 시장이 1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된다고 언급할 정도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도시"라고 평가했다. 서 총영사는 이어 "유엔 정상회의보다 벨뷰에서 더 많은 언어가 쓰일 정도"라며 "아시아 · 태평양양계 미국인(AAPI)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장소"라고 덧붙였다.

서 총영사는 또 "예술은 회화와 조각, 창의적 표현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체성, 감정과 역사를 전달하는 고유한 힘이 있다"며 "이번 전시는 단순한 갤러리 전시가 아니라 대화의 공간, 연결의 플랫폼, 그리고 다양성이 장벽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적 정서와 정체성을 폭넓은 지역사회와 나누고 있는 한인미술가협회 회원들과 모든 참가 작가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 인도 마두바니부터 힌디 시까지... AAPI 헤리티지 달의 의미
축사에 나선 콘래드 리 전 벨뷰 시장은 "날씨도 우리를 응원하는 듯 해가 떴다"

며 운을 띄운 뒤 "우리 모두 각자 다른 문화에서 왔다. 가끔은 옆 사람과 통하려면 따로 마음을 써야 한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일하고, 서로 알아갈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 전 시장은 "시의원으로 일하던 시절, 이런 다문화 사업이 시의 프로젝트로 채택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지금처럼 나라가 분열된 시기일수록 함께 이야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당선된 워싱턴주 하원 48지구 오스만 살라후딘(Osman Salahuddin) 의원은 "48지구 주민의 43% 이상이 이민자이고, 50% 이상이 유색인종"이라며 "한 지붕 아래 9개국 컬렉션, 60명이 넘는 작가가 모인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말했다. 살라후딘 의원은 옆방에서 가족 지갑을 만들고 있던 청년들을 언급하며 "모든 세대에 걸쳐 우리 지역사회가 가진 재능이 새삼 놀랍다"고 덧붙였다.

벨뷰 시의원을 7년간 지낸 뒤 의정에 진출한 41지구 재니스 잔(Janice Zahn) 의원은 "벨뷰가 추진해 온 '벽 없는 다문화 센터(cross-cultural center without walls)' 정신이 이번 전시에 그대로 담겼다"며 "행사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문화를 가로지르도록 한 것이 핵심 기준이었는데, 9개 문화가 함께한 이번 전시는 그 기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했다. 잔 의원은 서 총영사를 두고 "팝뮤직 박

물관(MoPOP)에서 한국 전통 한복부터 K-팝 버전까지 함께 어우러진 한복 패션쇼에서 처음 만났다"고 회상했다.

레드먼드 시의원 제시카 포사이스(Jessica Forsythe)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대신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알게 된다"며 "음악, 음식, 그리고 예술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연결한다"고 말했다.

전시 기간에는 인도 비하르 지방 전통 마두바니(Madhubani) 미술과 부족 미술, 손그림 모자 작품을 선보인 인도 작가의 작품 설명, 마하바라타와 가네샤 신화 해설, 힌디어 시 낭송이 이어졌다. 힌디어로 시를 낭송한 작가 판카지(Pankaj)는 가을 단풍을 노래한 시 한편과 함께 구글맵을 소재로 한 영어 시도 들려줬다. 판카지는 "이 도시의 모든 골목과 길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구글맵을 켜다.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내 길을 가는 짧은 순간, 내 움직임의 주인이 된다"는 구절을 낭독했다.

전시는 5월 9~10일과 16~17일 주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마지막 대표는 "이 외 시간에도 사전 연락을 주면 안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5월 10일 어머니의 날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인도 부족 미술(고드나 · 트라이베틸 아트) 워크숍이 별도로 진행된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타운타임즈 김승규 기자)

BUSINESS FOR SALE BY OWNER

SELLER 와 BUYER의 직거래 광고입니다.

<p style="font-size: 20px; font-weight: bold;">Dry Cleaner</p> <p>매매가: \$300,000 연매상: \$400,000 렌트: \$5,260 지역: 페더럴웨이 문의: 253-334-9042</p>	<p style="font-size: 20px; font-weight: bold;">Dry Cleaner</p> <p>매매가: \$400,000 연매상: \$500,000 렌트: \$6,700 지역: W. Seattle 문의: 206-313-1981</p>	<p style="font-size: 20px; font-weight: bold;">Dry Cleaner</p> <p>매매가: \$320,000 연매상: \$420,000 렌트: \$4,500 지역: 커크랜드 문의: 425-647-9005</p>	<p style="font-size: 20px; font-weight: bold;">Teriyaki</p> <p>매매가: \$150,000 월매상: \$35,000 렌트: \$4,250 지역: Monroe 문의: 425-273-4357</p>
--	---	---	---

사업체 매매 무료광고 문의: 206.229.6229 / E-mail:4989seattle@gmail.com

KW COMMERCIAL

TOP 10%
REAL ESTATE PRODUCER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이한나 부동산

주택 / 사업체 / 상업용 상가임대



Hanna Lee



Seller 특전
사업체 매매를 원하십니까?
MLS/CBA/BizBuySell
동시광고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422.4328
hannalee@kw.com
hannaleerealestate.kw.com

식당전문

이원규 부동산

253.941.4989 | 206.229.6229
wonlee@metrospi.com



초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테리야끼

1. Auburn	일매상	\$1,700	렌트	\$7,500	\$15만
P Marysville	일매상	\$1,800	렌트	\$2,700	\$18만
3. Shoreline	일매상	\$1,200	렌트	\$5,100	\$13만
4. Seattle	일매상	\$2,200	렌트	\$3,800	\$25만
5. Kent	일매상	\$3,500	렌트	\$8,500	\$50만
6. Kent	일매상	\$1,800	렌트	\$3,900	\$18만
7. Seattle	일매상	\$600	렌트	\$2,300	\$7만
8. Everett	일매상	\$1,500	렌트	\$2,750	\$18만

햄버거/델리

1. Kent	일매상	\$2,000	렌트	\$6,000	\$25만
2. Bothell	일매상	\$900	렌트	\$4,100	\$9만

한식/일식/중식당

1. Seattle	일매상	\$2,000	렌트	\$3,200	\$16만	한식당
P Bellevue	일매상	\$4,000	렌트	\$8,500	\$65만	한식당
3. Redmond	건평	3,000sf	렌트	\$11,500	\$25만	한식당
4. Edmond	일매상	\$1,500	렌트	\$3,400	\$20만	한식당
5. Tacoma	일매상	\$4,000	렌트	\$4,500	\$55만	한식당
6. FederalWay	일매상	\$2,000	렌트	\$3,200	\$20만	한식당
7. Gig Harbor	일매상	\$4,500	렌트	\$10,500	\$65만	일식당
8. Kent	일매상	\$1,200	렌트	\$2,900	\$12만	일식당
P Kent	월매상	\$8만	렌트	\$9,500	\$18만	일본 라멘
10. Edmond	일매상	\$2,000	렌트	\$4,200	\$30만	일본 라멘
11. FederalWay	일매상	\$1,500	렌트	\$3,700	\$15만	중식당



어르신들이 노래를 하고 있다.



K-양상블의 공연 모습.



어르신들이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다.

대한부인회, 어버이날 미니 음악회 성황

페더럴웨이 시니어센터서 100여 명 참석...정성 담은 공연과 식사로 감사 전해 K-양상블 공연으로 감동 더해...참석 어르신들 "음악 속에 잠긴 특별한 하루"

대한부인회(이사장 박명래)가 5월 6일 타코마 행사에 이어 5월 8일 페더럴웨이 지역에서 어버이날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페더럴웨이 KWA 시니어 시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우며 성황을 이뤘다.

이연이 부이사장은 "아버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며 어버

이날의 유래를 소개하고, "어르신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전·현직 임원들을 소개했으며, 이기열, 신도형, 종 데르론 명예 이사과 피터 안사라 사무총장이 함께 자리했다. 피터 안사라 사무총장은 "어머니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라며 "1972년 몇 분의 한인 어머니들이 모여 KWA를

창립했고, 오늘날 연간 10만 명의 고객을 돕는 단체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인 어머니들께 해피 마더스 데이로 전한다"고 축하 인사를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성껏 준비된 점심 식사와 떡이 제공된 가운데,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미니 음악회가 큰 호응을 얻었다. 워싱턴 K-양상블 김범수 예술감독이 테너로 출연하고 소프라노

최선미가 함께 무대에 올라 '신아리랑'과 '인생'을 선보였다. 특히 '인생'의 가사를 직접 낭독하며 어르신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깊은 감동을 전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이 '어버이날' 노래를 함께 부르며 부모와 가족을 떠올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화려한 공연장은 아니었지만, 어르신들은 음악 속에 잠시 머무르며 따뜻한 정서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를 공동 진행한 대한부인회 헤일리 김 매니저는 "멀리 고국을 떠나는 부모님들을 위해 더욱 정성을 들였고 보람을 느낀다"며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새벽까지 전화를 드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부인회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부인회 이사들이 소개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빙고게임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정성스러운 식사 모습.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눈 꺼풀 + 눈 밑 쳐짐.....	360	콧대 + 코끝	350
얼굴 쳐짐(목 쳐짐 포함).....	700	지방흡입(복부)	500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 ~ 1,000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함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함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팔순과 구순을 맞은 어르신들(앞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팔순과 구순을 맞은 어르신들이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페더럴웨이 한인회 류성현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은지 총영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페더럴웨이 한인회 고경호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어머니가 어머니를 부른 노래로 적시다"

페더럴웨이한인회 주최, 7일 '합동 팔 · 구순잔치 및 어버이날 효도잔치' 개최 한인회 · 총영사관 · 통합한국학교 · KAPA 학부모협회...3대가 함께 만든 잔치

페더럴웨이한인회(회장 류성현, 이사장 고경호)는 5월 7일 오전 페더럴웨이 커뮤니티센터에서 '합동 팔 · 구순잔치 및 어버이날 효도잔치'를 열었다. 페더럴웨이 노인회 상록회(회장 남성삼) 어르신들을 위해 한인회가 17년째 이어 오고 있는 효도잔치로, 코로나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을 쉬 뒤 2023년부터 다시 매년 열리고 있다. 사회는 이 구씨가 맡았다.

이날 합동 수연(壽宴)의 주인공은 팔순을 맞은 한신옥 여사와 한재희 응, 구순을 맞은 구춘희 여사 등 세 사람이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단 어르신들은 한인회 임원진과 함께 자리를 가운데 환영사와 축사, 축하공연, 노래자랑으로 이어지는 행사를 2시간가량 진행했다.

류성현 페더럴웨이한인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모든 부모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삶을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과 정성으로 모아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또 "그 정성이 부모님이 바라시는 자식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모두가 소망한다"며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시고 노후가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서은지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를 향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축사에 나선 서은지 총영사는 "오늘 팔순과 구순을 맞으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내일이 한국에서도 어버이의 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서 총

영사는 "딸을 대학에 보낸 뒤 연락이 뜸해질 때마다 섭섭함을 느끼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정어머니 생각이 난다"며 "학교 다닐 때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전화를 자주 받지 못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이제야 헤아리게 된다"고 개인적인 소회를 전했다.

서 총영사는 "나이를 먹으면서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며 "최근 한 상담 전문가가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잘 살아오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울컥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어르신들을 뵈며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며 "한인 커뮤니티가 페더럴웨이를 비롯해 워싱턴주와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성장한 데에는 어르신들의 큰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 정말 잘 살아오셨고,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축사를 이어간 고경호 페더럴웨이한인회 이사장은 "오늘 가슴에 꽃을 단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본 것은 처음"이라며 "어버이날의 유래가 몇 년 됐는지 아시는 분이 있느냐"고 물어 분위기를 풀었다. 고 이사장은 "팔순은 옛날의 50세, 구순은 옛날의 55세처럼 보이신다"며 어르신들을 추켜세운 뒤 "17년 전 상록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70은 청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올해 70이 된 지금 그 말이 그대로 맞았다"고 회고했다. 고 이사장은 "오늘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모두 50대처럼 젊어 보인다"며 "건강관리와 규칙적인 생활을 잘해 오신 덕분에 팔순과 구순을 맞으신 것"이

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과 가족, 사회의 발전은 모두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는 뜻깊은 어버이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구춘희 여사의 하모니카... '어머니의 마음'에 모두가 따라 부르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구순을 맞은 구춘희 여사의 하모니카 독주였다. 구 여사는 독학으로 익힌 하모니카로 '어머니의 마음' 1절을 직접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연주가 끝난 뒤에는 한인회 임원과 어머니들이 무대로 함께 나와 1절부터 3절까지 '어머니의 마음'을 합창하며 그 뜻을 새겼다. "날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가사는 객석의 어르신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축가가 끝난 뒤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진행됐고, 이어 페더럴웨이한인회의 생신 선물 증정과 임원진의 큰절이 이어졌다.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임원진 전원이 단상 앞으로 나와 팔순과 구순을 맞은 어르신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은 큰절을 올렸으며, 케이크 커팅이 이어지며 공식 행사의 정점을 이뤘다.

◆ 17년 이어진 효도잔치... 상록회 19년째 한자리에 감사 인사에 나선 남성삼 상록회 회장은 "오랜 미국 생활 동안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해 말주변이 부족하다"며 운을 뗀 뒤 "오늘 페더럴웨이한인회가 주최한 팔순잔치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남 회장은



김메리와 단원들의 라인댄스 공연.

이어 이승례 부이사장을 단상으로 불러 상록회 역사를 소개했다. 이승례 부이사장은 "상록회는 1982년 8월 23일 목요일 출범했고, 여러 곳을 거쳐 2007년 현재 자리로 이사 와 올해로 19년째 자리를 잡고 있다"고 전했다. 또 "페더럴웨이한인회와 함께한 팔 · 구순잔치는 올해로 17년째이며, 코로나로 2020 · 2021 · 2022년 3년을 쉬 뒤 2023년부터 다시 매년 열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페더럴웨이한인회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남 회장은 "상록회는 누구의 모임이 아니라 회원들의 모임"이라며 "운동을 비롯해 빙고 등 다양한 활동을 늘 열어두고 있으니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카네이션 · 떡 · 쌍화차... 3대(代)가 함께 만든 잔치

이번 행사는 한인회 단독이 아니라 여러 단체의 손길이 더해져 완성된 점이 두드러졌다. 페더럴웨이통합한국학교가 카네이션을 준비했고, 페더럴웨이한인학부모협회(KAPA) 학부모들이 어르신들의 가슴에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학부모들은 카네이션 봉사뿐 아니라 배식과 노래 봉사에도 함께했다.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준비한 쌍화차와 보양 음료는 한인회가 마련한 떡과 함께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 한 사람 한



페더럴웨이 한인회 임원과 서은지 총영사 등 한인들이 함께 '어머니의 은혜'를 3절까지 부르고 있다.

사람에게 개별 포장해 전달됐다. 어린 학생부터 학부모, 그리고 어르신까지 3대(代)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를 함께 만든 모습은 페더럴웨이한인회가 추구하는 운영 방향과 잘 맞아와 있었다.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는 축하연이 이어졌다. 김영남과 악단들의 축하 연주를 시작으로, 김메리와 단원들의 라인댄스 공연, 상록회 회원들의 노래방 무대가 차례로 펼쳐졌다.

노래방 첫 무대에 오른 김현씨는 '고장난 벽시계'를 부르며 "보내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인사를 전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홍명란씨의 '별빛 같은 내 사랑', 이연옥씨의 '부초', 최남희씨의 '천년바위', 김영진씨의 '우중의 여인', 임복자씨의 '바람', 권오순씨의 '봉선화 연정', 한미연씨의 '연상의 여인'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중간중간 김영남과 악단들의 축하 연주와 이윤생씨의 시낭송이 자리를 채웠다. 행사는 당초 12시 40분 폐회 예정이었으나, 어르신들의 호응이 이어져 1시까지 연장됐다.

이날 행사는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페더럴웨이한인학부모협회(KAPA), 페더럴웨이통합한국학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구순을 맞은 구춘희 여사가 독학으로 익힌 하모니카로 '어머니의 마음' 1절을 연주하고 있다.



남성삼 페더럴웨이 상록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승례 페더럴웨이 상록회 부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영남과 악단들.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 페더럴웨이 뉴호프

FEDERAL WAY NEW HOPE | 방과후 학교

방과후학교

숙제 도움 & 성경 공부

HOMEWORK & BIBLE ACADEMY



월요일 - 금요일

Monday - Friday



오후 3:00 - 6:00


3:00 PM - 6:00 PM



초등 · 중학생

Elementary & Middle School

◆ 프로그램 내용 ◆

■  숙제 지도 및 학습 도움
Supervised Homework Assistance

■  성경 공부 & 기도
Bible Study & Prayer

■  간식 제공
Snack Provided Daily

■  미술 & 창작 활동
Arts & Creative Activities

■  음악 & 야외 활동
Music & Outdoor Play

■  안전한 신앙 환경
Safe Faith-Based Environment

📍 오시는 길 / ADDRESS

31411 6th Ave South

Federal Way, WA 98003



수업료: 하루 \$20



206-759-0125

믿음으로 배우고, 사랑으로 자라갑니다!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만성 질환 수술

더이상 불편함을 참지 마시고 치료 하세요!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휴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치질
(1-3일)

자궁
(2-6일)

유방
(2-5일)

척추
(1-5일)

편도선
(1-5일)

담낭용종(담석)
(2-4일)

요실금
(2-4일)

갑상선
(3-4일)

관절(어깨, 무릎, 고관절등)
(3-14일)

암수술
(5-14일)

탈장
(2-3일)

난소
(2-3일)

전립선
(1-14일)

하지정맥류
(1-3일)

※ ()입원기간 표기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서울부민병원(가양역)

강남병원(기흥역)

H+양지병원(신림역)

세란병원(독립문역)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휴람의료네트워크병원은 휴람 고객을 최우선으로 one-so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오전 4시간 49만원 ~ 110만원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65만원 ~ 110만원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115만원 ~ 186만원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10만원 ~ 320만원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2일간 진행(오전에만 검사 시행) 462만원 ~ 485만원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광동병원[양방&한방](봉은사역) | |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결혼 1주년 앞두고..." 시카고 한인 우버 기사 비극적 죽음

- ▶ 제슨 조(38)씨, 18세 승객 태운 채 시카고 서부서 매복 총격에 숨겨
- ▶ 디폴대 졸업한 금융 분석가... 여자친구와 1주년 기념일 앞두고 비극
- ▶ 경찰 "승객이 표적이었을 가능성"... 범인은 회색 SUV 타고 도주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Uber)를 부업으로 운전하던 시카고 거주 한인 남성이 승객을 태운 채 무차별 총격에 휘말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함께 타고 있던 18세 고교생 승객 역시 같은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피해 한인 제슨 조(Jassen Cho·38)씨는 평소 금융 분석가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업으로 우버 운전을 병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시카고 한인사회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 시카고 서부 가필드파크서 '드라이브바이' 총격 시카고 경찰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 직전 시카고 서부 이스트 가필드파크(East Garfield Park) 지역 노스 호먼 애비뉴 200블럭 인근에서 발생했다. 조씨는 당시 자신의 흰색 혼다 시빅 차량으로 농구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18세 다마리온 존슨(Damarion Johnson)군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회색 SUV 차량이 옆으로 접근했고, 뒷좌석에 있던 한 남성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총격을 가한 이른바 '드라이브바이 슈팅' 형태의 범행이었다. 조씨는 팔에

총상을 입고 스트로거 병원으로 긴급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탔던 존슨군 역시 몸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이 확보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회색 SUV가 피해 차량 옆으로 접근한 직후 총격이 시작되는 순간이 포착됐다. 용의 차량은 미시건주 번호판을 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범행 직후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다. 용의자는 회색 스웨터를 입은 흑인 남성으로 묘사됐을 뿐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 "승객이 표적"... 1만 달러 현상금 내걸려 수사 당국은 18세 승객 존슨군이 범행의 표적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용의자도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쿡 카운티 크라임 스토퍼스(Cook County Crime Stoppers)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대 1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폴 루더포드(Paul Rutherford) 크라임 스토퍼스 사무총장은 "지역 사

회 누군가는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익명으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보는 1-800-535-7867 또는 CPDTIP.com을 통해 익명으로 가능하다. 시카고 경찰 4구역 강력반(Area Four Detectives)이 수사를 맡고 있다. 존슨군은 시카고 오스틴 지역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더 킹 지수잇 칼리지 프렙(Christ the King Jesuit College Prep)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으로, 대학 농구 장학금 제의를 받고 있던 유망주였다. 트로이 칼드웰 농구 코치는 "몇 주 안에 위스콘신 소재 한 대학교 공식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존슨군은 시카고 도심 청소년 농구 멘토링 프로그램 '프로젝트 스위시(Project sWISH)' 소속이였으며, 이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1월 14세 소년이 총격으로 숨진 데 이어 두 번째 희생자가 됐다.

◆ 여자친구와 1주년 기념 앞두고 떠난 '따뜻한 한인' 숨진 조씨는 시카고 노스웨스트 알바니파크(Albany Park) 지역에서 성장했으며, 일리노이주 팔러타인(Palatine) 고등학교를 거쳐 디폴



[사진=인스타그램,FB] 한인 제슨 조(Jassen Cho·38)씨와 18세 다마리온 존슨(Damarion Johnson)

(DePaul) 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시니어 금융 분석가(Senior Financial Analyst)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왔으며, 추가 수입을 위해 최근 몇 달간 우버 운전을 부업으로 병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0일(일요일) 여자친구 제니퍼 가르시아씨와 교제 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었으며, 오는 7월에는 함께 입주할 새 보금자리도 마련해 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가르시아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곁에 있어주던 사람이었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던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의

유머와 매력, 그리고 진심 어린 성품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닿았다"며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의 누나 애니(Anny)씨도 현지 매체에 "동생이 여자친구와 1주년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한 가족 지인은 SNS에 "제슨은 늘 친구들을 챙겼고, 모두를 친절과 존중으로 대했다"며 "그의 삶이 이런 끔찍한 폭력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었다. 우버 측은 성명을 통해 "이 비극적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범행 책임자들이 신속히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스포츠서울USA SPORTS SEATTLE

WOMAN'S

MEDIA GROUP CORP.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com

JEIL TV 제일티비 KOREA TV 한국 티브 방송 실시간 시청

58개 채널 실시간 생방송 제공 모든 채널의 재방송 시청 가능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생방송: 드라마, 오락, 영화, 뉴스, 스포츠, 어린이, 해외드라마, 종영드라마까지 풍부한 콘텐츠

KBS	MBC	SBS	EBS	tvN	YTN	Mnet	inet-TV	OCN	CTS	JEI 재능
SBS	KBS	KBS2	MBC	EBS	연합뉴스	YTN	JTBC	MBC	CHA	
TV조선	TVN	OCN	OCN Movies	OCN Thrills	SCREEN	TVN	TOONIVERS	KBS Kids		
재능 TV	EBS2	EBS English	TOONIVERS	KBS스포츠	MBC 스포츠	SBS GOLF	SBS스포츠	KBS스포츠		
MBC 스포츠	SBS GOLF	JTBC GOLD	SPOTV2	SPOTV	SPOTV ON	MBC 스포츠	JBC GOLF&스포츠	SPOTV		
MNET	CH NOW	TVN Show	SPOTV2	INET	BILLARDS TV	NATIONAL	TVN Story	INET		
MBC DRAMA	NATIONAL	JTBC2	FTV	바둑TV	BTN	KBS joy	SBS PLUS	KBS DRAMA		
매일경제TV	CNTV	CHING	BBC	CTS		CNTV	BBC	CTS		
	MBC	PBC	KBS1	KBS2		MBC	SBS	KBS2		

가격할인 이벤트

3개월 \$ 90

6개월 \$ 180

1년 \$ 330

Set top Box ~~\$70~~ \$50

Free Shipping(미국 내 only)

Free Activation

Cell: 702-937-4616 Email: koreatvjeiltv@gmail.com 카카오톡: Koreatvjeiltv (문자 & 보이스톡 가능)

벼룩시장

J&J CLAIMS 지원자 모집

현재 J&J CLAIMS (www.carcrashwa.com) 팀에 합류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직무:
개인 상해 (자동차 사고 등) - 2명
일반 소송 (법률 보조) - 1명

▶근무지: 다운타운 타코마 (IRS 빌딩 6층)

▶자격 요건: 영어/한국어 가능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 (MS Word, Excel 등)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오후 5:00

▶근무 환경: 실내주차장 제공, 깨끗한 주변, 안전한 근무 환경

▶페이조건: \$22~\$52.08 +

▶업무 내용: 고객 (병원 등)과의 소통/병원 및 고객 관련 문서 관리 및 정리

지원 방법: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sung@carcrashwa.com으로 제출해 주세요.

북경가든 주방장 구함

주방장 구함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253.588.2399

최첨단 페이스/바디케어 미용장비 판매

1. SMART Line Skin Care. 7-in-1
Skin scrubber, Lonto Phoresis, Y Lifting, Ultral Sound, Cryo
2. E-Trans system/Magic pot. 최첨단 리프팅기기
트리폴라 열에너지, 초강력 엔들로마자 시스템,
부이 빔 블루 레드 칼라 테라피

503-957-3821

벨뷰 뮤직 아카데미

- ▶노래교실&동호회 - 음치도 박치도 괜찮다!함께 즐겨요!
- ▶통기타 강의 - 초보: 실력에 맞춘 강좌.
- 중급:악보없이 기타칠 수 있습니다.
- ▶드럼 - 스트레스 날릴 파워풀한 리듬!
- ▶K-POP - 프로 아티스트 트레이너
-YG,PSY,김범수,성시경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

206-306-6108

Shin's Wellbeing Food

shinwellbeingfoods.carrd.co
김치 Specialist
무설탕,NO MSG,한국 고추가루사용

천연재료만으로 맛을 낸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김치 배달합니다.

206-887-3088(카톡주문 가능)

조선용보험에서 함께 성장하실 에이전트 및 office assistant를 찾습니다.

영어, 한국어 사용
컴퓨터 사용 (Excel, Word)
메디케어, 워싱턴 헬스 플랜 중점 취업가능자 (full time/ part time)
베네핏 가능, 영문 이력서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5.951.9210
justinc@evergroup.us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페더럴웨이 경치좋은 레톤도 비취에 있는 1층 전체 렌트

화장실1, 방1, 거실
인터넷 설치 완비
금연자 환영. \$950/M.

213-819-2556

구인

H-mart Tacoma 구인
지원자격:미국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지원부서:Cachier,☞cery, Deli

근무조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점심 제공

(425) 312.4588

공항 Pick Up

공항 Pick Up 또는
라이더 필요하신분
어디든지 갑니다

253-337-7209

[구인] Park Chenaur and Associates, LLP

법률 보조 / Legal
Assistant (한 · 영 능통)

Federal Way 소재 개인상해 로펌에서
.한국어 · 영어 능통자를 찾습니다.
풀타임 사무실 근무
연 \$40,000~\$50,000

무료상담

편안한 집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민생활과
가정, 자녀, 신앙 등에
관한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253-503-9984

주유소 파트타임

(주 3~4일)
일하실 직원분 구합니다.
디모인스
(Sea Tac 근처)지역
(전화,문자)

206-334-7532

한국식당 장비판매

바베큐 테이블 set 신제품 20개
(마블10개/ 체리10개),
냉면 육수 냉장고, 스시 케이스 5ft,
파저리 기계, 등..
한국바베큐식당에 필요한것
모두 있습니다.

253-754-5243

뷰티 서플라이 일하실 분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실 분
경험자 우대
full or part time

253 228 4727 / 504 444 7453

업무: 고객 · 변호사 소통, 서류 /
기록 관리, 사건 진행 보조
자격: 한국어 필수, 컴퓨터 활용 능력,
꼼꼼함 · 책임감
우대: 법률사무소/사무직/고객응대 경험

혜택: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등

문의:(253) 461-0810
및 Indeed.com 참조

렌트

벨링햄
방 한개만
사용할 학생
\$800/월

(253) 334.6078

차량 판매

2014년 형 렉서스 CT 200h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합니다.
원래 오너가 곱게 타던 무사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색깔은 빨간색

206.670.8654

룸렌트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캐쉬어/세일즈/창고
직원 원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이메일 : twin0418@aol.com

(253) 582.2975

스페이스 리스

스노퀼미 마켓 Empty Space 렌트
스노퀼미역 바로 앞/스노퀼미
폭포 관광지에서 1마일 / 커피, 빵
스무디 등의 비즈니스에 적합
Set - Up 공사기간 3개월
FREE Rent, 1,895 Sqft
렌트비 : \$3,947+ NNN

(206)496.7060

아파트 렌트

- ▶방1, 큰화장실1
유틸리티 \$150
렌트비\$1,500
- ▶방2, 화장실1
유틸리티\$150
렌트비\$1,500

방 렌트

씨택 공항 근처
렌트비: 750불(유틸리티 포함)
남학생, 직장 다니시는 분
환영.
금주, 금연 하시는 분 환영

206-679-9208

간병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청소/요리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라이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항시 남/여 일할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53) 571.8080

로맨틱 소개팅 (결혼정보)

당신에게 맞는 짝이 있습니다
커플메니저가 좋은 만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253) 571.8080

병원 스페이스 렌트

L.AC, DPT, LMT
Office space for Rent
815 sqft
(Including rooms, recreation
rooms, and bathrooms)

253-941-6779
Email:chachiropractic@gmail.com

- ▶방1, 화장실1
유틸리티 \$100
렌트비\$1,200

신축, 좋은 로케이션
(타코마 부한 바로 옆)

253-302-7095

박스광고 \$80/4회 206-779-5382



시애틀 오페라 '제4회 한국인의 밤' 프리쇼



이연지 소프라노가 오페라 공연에 앞서 '비제'를 소개를 하고 있다

"자유가 노래가 되는 순간"시애틀 오페라 '카르멘'과 함께 한 '한국인의 밤' 4회째 성료

- ▶ 9일 맥카우 홀 노드클리프 룸서 4회째 프리쇼...한인 관객·귀빈 함께 해
- ▶ 이연지 소프라노가 직접 카르멘 해설하고 한국 가곡 미니 콘서트까지 진행
- ▶ 의사 출신 줄리 시에 머서아일랜드 시의원, 즉석에서 카르멘 아리아 열창

주시애틀총영사관과 시애틀 오페라가 공동 주최한 제4회 '카르멘과 함께 하는 한국인의 밤(Korean Night at Carmen)'이 지난 5월 9일 시애틀 맥카우 홀(McCaw Hall)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본 공연인 비제 오페라 '카르멘' 시작에 앞서 오후 6시 맥카우 홀 3층 노드클리프 룸(NordCliff Room)에서 열린 프리쇼에는 한인 관객과 귀빈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 진행과 강연, 한국 가곡 미니 콘서트는 시애틀 오페라의 한국계 주연 소프라노 이연지가 도맡았다. 한국어로 진행된 강연에 대비해 주최 측은 실시간 통역과 인공지능(AI) 회의록 앱 비즈크러시(Bizcrush)의 큐알(QR) 코드를 별도로 제공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관객도 휴대폰을 이용해 영어 자막으로 강연을 따라갈 수 있게 했다. 비즈크러시 측에서 직접 사용법을 안내했다.

◆ "비제는 150년 전 K팝페라"...자유와 카르멘에 대한 강연

이연지 소프라노는 이날 강연 주제를 '자유가 어떻게 노래가 되는가(How freedom becomes a song)'로 잡았다. 이 소프라노는 자신을 "2017년 시애틀 오페라에서 주연으로 데뷔한 첫 한국 여성 가수"라고 소개한 뒤, 이후 앵커리지·버지니아·아이다호 오페라단을 잇따라 거친 경력과 파리 콩피두 센터·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진행한 설치 미술 협업,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한국 초연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본격 강연에서는 비제(Bizet)의 음악적 위치를 짚었다. 이 소프라노는 "비제 이전의 오페라가 왕실과 귀족을 위한 신화 중심의 작품이었다면, 비제의 오페라는 대중을 향해 열린 쇼피몰 같은 작품"이라며 "오페라에서 음을 붙여 말하는 레치타티보 대신 일상 대화(spoken

language)를 사용한 것이 비제가 만든 새로운 흐름이었고, 이것이 훗날 뮤지컬의 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제를 BTS 소속사를 이끄는 방시혁 의장에 비유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이 소프라노는 "비제는 9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고 19살에 로마 대상을 받은 천재이지만, 그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중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당대 히트곡 제조기였던 비제는 지금 시각으로 보면 150년 전의 케이팝페라 작곡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대표곡 '하바네라(Habanera)'가 카르멘 역 메조소프라노에게 13번이나 되짜를 맞은 끝에 14번째 안에서야 채택됐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이 소프라노는 또 "비제는 1875년 3월 3일 카르멘을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초연한 직후 혹평을 받았고, 약 3개월 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며 "공연 4개월 뒤 빈에서 카르멘이 대박을 터뜨리고 브람스가 스무 번 넘게 관람할 정도로 사랑받았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또 같은 해 조선에서 윤요호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들어 "프랑스 파리와 조선이 각자 격변기를 통과하던 같은 시기, 카르멘은 자유롭게 살고자 한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해석했다.

이번 시애틀 오페라 카르멘은 원작의 스페인 배경 대신 1950년대 피델 카스트로 혁명 직전의 쿠바 아바나를 무대로 옮긴 2019년 프로덕션을 다시 올린 작품이다. 이 소프라노는 "'하바네라'의 어원이 된 그 아바나"라며 작품의 시대·공간 변경 의미를 짚었다.

◆ 서은지 총영사 "4년 연속 코리아데이, 한인 커뮤니티가 유일"

축사에 나선 서은지 주시애틀 총영사는 시애틀 오페라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 총감독에게 감사의 뜻을 먼저 전했다. 서 총영사는 "처음 코리아데이를 시작할 때 독일 커뮤니티와 함께 출발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시애틀 오페라와 함께 코리아데이를 이어온 커뮤니티는 한인 커뮤니티가 유일하다"며 "시애틀 오페라 측에서도 한인 사회의 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즌에는 한국 성악가가 무대에 오르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한국 오페라 가수들이 시애틀 오페라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 총영사는 또 로빈슨 총감독에게 케이팝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오페라 버전 제작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서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특별 게스트로 한국계 정치인 신디 류(Cindy Ryu) 워싱턴주 하원 의원 겸 주 상원 출마자, 벨뷰 학군 학교운영위원 제인 아라스(Jane Aras), 머서아일랜드 시의원 줄리 시에(Julie Hsieh), 시애틀 차이나이즈 챔버 오브 머스(Chinese Chamber of Commerce) 릴리 해피티엔을 차례로 소개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은지연 이사장도 자리에 함께 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제임스 로빈슨 총감독은 "시애틀에 부임한 지 1년 8개월이 됐고,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 중 한 명이 한국 측 인사였다"며 "한국 음악과 한국 성악가, 한국 지휘자를 시애틀 오페라 무대에 더 많이 올리는 방안을 두고 총영사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빈슨 총감독은 "이번 카르멘에는 오케스트라 피트에 시애틀 심포니 단원 65명, 무대 위 출연자 85명, 백스태이지 인력 30~40명이 함께한다"며 "팬데믹 이후 공연 예술단체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

지만 시애틀 오페라는 현재 풀스태이지 오페라 3편과 세미스태이지 1편으로 운영하고 있고, 2년 안에 5편 체제로 다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티모시 살라메가 오페라와 발레를 폼파한 발언을 한 직후 '티모시(Timothy)'를 프로모션 코드로 적용해 14% 할인 캠페인을 벌여 티켓 판매가 급증하고 BBC 등 세계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 줄리 시에 시의원 깜짝 무대...마지막 곡은 '그리운 금강산'

이날 행사에서는 의사 출신으로 머서아일랜드 시의원이자 벨뷰 유안루(Yuan Ru) 갤러리 운영자인 줄리 시에의 즉석 무대가 깜짝 등장해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시에 시의원은 늦은 도착에 대해 "오늘 다섯 번째 일정"이라며 양해를 구한 뒤 "어릴 때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는데 결국 가정의학과 의사가 됐고 지금은 미술 분야에 있다"며 "카르멘을 보러 가기 전에 약간의 퀴즈를 해보자"고 운을 띄웠다.

시에 시의원은 카르멘에 등장하는 대표 아리아의 첫 소절을 직접 부른 뒤 관객들에게 곡 제목을 맞히도록 했다. 두 곡 모두 카르멘 1막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메조소프라노 아리아였다. 이연지 소프라노는 "줄리 시에 시의원의 카르멘 데뷔작과 같은 곡이었고, 당시 프로덕션이 시애틀 오페라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을 만큼 훌륭했다"고 시에 시의원의 무대 경력을 소개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연지 소프라노는 시에 시의원의 무대를 두고 "기존의 클래식 정통 카르멘이었다면, 오늘 무대는 1950년대 아바나를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색깔의 카르멘이 될 것이라 더욱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연지 소프라노는 이어 직접 큐레이팅한 한국 가곡 미니 콘서트로 무대를 이어갔다. 시애틀 오페라 측은 미국·유럽 메이저 오페라 극장을 통틀어 전곡 한국어 가곡 프로그램이 무대에 오

른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이 소프라노는 한국 현대 가곡 두 곡과 자작곡, 그리고 한국 정통 가곡 한 곡으로 무대를 구성했다.

자작곡 'Enough'는 시애틀 오페라 한국인의 밤을 준비하던 어느 밤, 번덕스러운 시애틀 날씨 속에서도 자신의 때에 맞춰 피어나는 벚꽃에서 영감을 얻어 쓴 곡이라고 소개했다. 이 소프라노는 "어떤 경험을 거쳤든 그 자체로 한 그루의 꽃나무로 서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이 곡은 6월 정규 디지털 싱글로 발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무대는 한국 정통 가곡 '그리운 금강산'이었다. 이 소프라노는 "남으로 내려온 실랑민이 더 이상 금강산에 갈 수 없게 된 그리움, 그리고 만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곡"이라고 설명한 뒤 프리쇼 무대를 마무리했다. 프리쇼가 끝난 뒤 오후 7시 30분 맥카우 홀 본 무대에서는 시애틀 오페라의 2025~2026 시즌 마지막 작품인 비제의 '카르멘' 본 공연이 약 3시간 30분에 걸쳐 펼쳐졌다. 카르멘 역에는 타코마 출신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세계적 메조소프라노 제이나이 브리지스(J'Nai Bridges)가 무대에 올랐고, 지휘는 시애틀 심포니 명예 지휘자 루도빅 모를로(Ludovic Morlot)가 맡았다. 시애틀 심포니 단원 56명과 40인조 시애틀 오페라 합창단이 함께한 이번 공연은 두 차례 인터미션을 두고 진행됐으며, 프랑스어 원어 공연에는 영어 자막이 제공됐다. 이연지 소프라노가 강연에서 짚었던 1950년대 아바나의 풍경은 무대 위에서 그대로 살아났다. 원작의 스페인 정취를 쿠바 혁명 직전의 카리브해 도시로 옮긴 연출 속에서 '하바네라'와 '투우사의 노래', '꽃의 노래' 같은 익숙한 선율이 새로운 색채로 흘러나왔고, 객석은 공연 내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카르멘 본 공연은 5월 17일까지 맥카우 홀에서 이어진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린우드에 위치한 에스테틱 샵을 개인 사정으로 인해 파격적인 가격에 양도합니다.

몸만 들어오면 바로 운영 가능!

비즈니스 매매

린우드 뷰티샵 스튜디오 금매 - \$25,000
(장비 풀세트 포함, 즉시 운영 가능)

현재 구비된 최신 장비 가격에도 못 미치는 \$25,000에
모든 시설과 장비를 포함하여 넘겨드립니다!

<p>📍 위치 린우드 (Lynnwood, WA)</p>	<p>💰 희망 양도가 \$25,000 (권리금 및 장비 포함)</p>	<p>🏠 상태 즉시 운영 가능 풀세팅 완료!</p>
---	--	---

포함내역 독일제 전신 레드라이트 테라피(Red Light Therapy) 기기
한국산 최신 초음파 페이스 리프팅(Ultrasound Facial Lifting) 기기
기타 샵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테리어 및 집기 (Turn-key)

특이사항 몸만 들어오셔서 바로 운영 가능한 풀세팅 상태입니다.



소자본 창업이나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기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25 561 7866

GMART
www.hmartus.com

7 DAYS SALE

MAY 15TH - MAY 21ST, 2026

일주일 내내 매일할인
(야채부/정육부는 4일만 진행)



HANSANG “한상 가득” 브랜드 Week

재래김 12pk/5g 2종 **3.98 EA**

ICE CAKE (LICED) 쌀떡국떡 500g **1.28 EA**

한상 동우얼짱
SPICY EPICE
SEASONED SMALL OCTOPUS
PETITE PEUVRE ASSASSINÉE
650g
14.98 EA

한상 점보 삼각김밥
156g, 161g 3종
3.48 EA

한상 참쌀반계탕
Chicken Soup (Half Size)
PRODUCT OF KOREA
600g
5.98 EA

한상 녹두삼계탕
Chicken Soup Flavored With Mung Bean
PRODUCT OF KOREA
900g
8.98 EA

HOT DEALS

ONLY 4 days 금/토/일/월

생태패삼겹살 **6.98 LB**

제스프리 골드키위 **32.98 BOX**

마다코 슬라이스 **2.68 PK**

레몬랜드 갈치구이 **7.98 PK**

PRODUCE SALE 야채

ONLY 4 days 금/토/일/월

레드체리 **6.48 LB**

백/황도 복숭아 **3.78 LB**

아보카도 **0.98 EA**

씨 없는 수박 **8.98 EA**

백/황천도 복숭아 **3.78 LB**

타미망고 **12.98 BOX**

페르시안 오이 **1.28 LB**

팽이버섯 150g **0.78 EA**

청경채 **1.48 LB**

시금치 **1.48 EA**

통마늘 **1.48 EA**

파리 고추 **2.48 LB**

MEAT DEALS 정육

ONLY 4 days 금/토/일/월

생찜갈비 **11.98 LB**

국거리용 등심 **3.98 LB**

항정살 **7.48 LB**

Half Cut 생삼겹살 **6.48 LB**

돼지목살 샤브샤브 **6.48 LB**

Available at HMART and GMART except the 2nd & Pine and UW Seattle store. Valid while supplies last. Quantities limited to stock on hand. Images may not be the same as shown. Copyright©H-MART corp. All Rights Reserved. 본 프로모션은 HMART와 GMART에서 적용되며, 2nd&Pine

GROCERY DEALS 식료품

 <p>20LBS (HOMAI) 백미 13.98 BAG</p>	 <p>4kg (하동군) 찹쌀 한국산 23.98 BAG</p>	 <p>2.5kg (총가집) 맛김치 14.98 EA 2.5kg (총가집) 포기김치 18.98 EA</p>	 <p>6pk/500ml (한상) 사골곰탕 9.98 BOX</p>	 <p>5pk/120g (팔도) 꼬꼬면 해물라면 4.98 EA</p>	 <p>920g (홍야) 사천짜장 6.98 EA 960g, 1260g (홍야) 짬뽕 2종 8.98 EA</p>
 <p>259g~310g (오투기) 김치밥 4종 3.48 EA</p>	 <p>400g (아워홀) 순두부찌개 4.48 EA</p>	 <p>12pk/86g (중심) 김치 사발면 12.98 BOX</p>	 <p>4pk/127g (중심) 짜파게티 4.48 EA</p>	 <p>480g~902g (칠갈) 3종 냉면 3.48 EA</p>	 <p>360g, 450g (한상) 강통사발면 3종 4.48 EA</p>
 <p>2.64LBS (초립통이) 손만두 2종 5.98 EA</p>	 <p>700g (삼양) 왕고자 2종 5.98 EA</p>	 <p>328g~404g (한상) 꼬치어묵 3종 3.98 EA</p>	 <p>500g (대립선) 게맛살 2.98 EA</p>	 <p>340g (초립통이) 알탕용명란 5.98 EA</p>	 <p>227g (초립통이) 3종 오징어채 9.98 EA</p>
 <p>650g (한상) 건강하 통단부지 3.98 EA</p>	 <p>1.8L (롯데) 미림 5.98 EA</p>	 <p>900ml (롯데) 국간장 진간장 2.48 EA</p>	 <p>1kg (곰표) 부침가루 튀김가루 2.48 EA</p>	 <p>250g (한상) 바삭 회오리감자 6.98 EA</p>	 <p>12pk/336g (오리온) 후레쉬베리 오리지널/복숭아 4.48 EA</p>
 <p>160g (오리온) 꼬북칩 5종 2.48 EA</p>	 <p>300g (오스넵) 옛날과자 4종 1.48 EA</p>	 <p>5pk/160ml 아이스크림 파우치 3종 5.98 EA</p>	 <p>6can/240ml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4.98 EA</p>	 <p>230ml (칸타빌레) 7종 에이드파우치 0.58 EA</p>	 <p>750ml 지평 마걸리 3종 4.78 EA</p>

SEAFOOD SALE 수산

 <p>두부어묵 3.68 LB</p>	 <p>냉동삼치 1.98 LB</p>	 <p>8oz (청해거상) 냉동전복 5미 10.98 PK</p>	 <p>12.35oz (초립통이) 해초무침 2.78 PK</p>
---	--	---	---

DELI SPECIALS 반찬

 <p>75g (레몬랜드) 매운지리멸치볶음 4.78 PK</p>	 <p>125g (레몬랜드) 간장고추 2.78 PK</p>	 <p>85g (레몬랜드) 건새우마늘공볶음 3.78 PK</p>	 <p>170g (레몬랜드) 흑임자인절미 3.98 PK</p>
--	--	---	---

KITCHEN & HOME DEALS 생필품

 <p>(코텍스) 보급형 건조대 16.48 EA</p>	 <p>(영스타) 다용도 건조망 1매 11.78 EA</p>	 <p>HELLO KITTY 접시 9.98 EA</p>	 <p>HELLO KITTY 공기 9.98 EA</p>
---	---	--	---

NEW ARRIVAL
SHOP NOW!

모티 한입에 먹기 좋은 빵튀기 3종

오디저트 치즈크림/순우유 케이크



OPEN 365 DAYS
8AM - 9:30PM

MORE DEALS IN-STORE!
VISIT YOUR NEAREST LOCATION

Bellevue | Federal Way | Lynnwood | Redmond
Tacoma | Ballard | Lynnwood Gmart (8am-9pm)

과 UW Seattle 매장은 제외됩니다. 프로모션 제품은 조기 품절되거나,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물의 사용에 대한 법적 권한은 H MART에 있습니다.

* UW and Seattle (2nd & Pine) stores are excluded from the sale.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시애틀 No.1 한인 여행사

드림투어

206.200.3113

주소: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OK Handyman

페인트 · 보일러 · 펜스
데크 · 각종 집수리 등

Cell 206.306.6700 | 206.779.5382
Email skgid7700@gmail.com

연금저축보험 / 대학자금 / 일반연금 / 암보험

조요셉 종합보험

자동차 사업체
주택 생명보험

문의 253.459.9800
개인별 맞춤설계 / 회사별 비교견적 / 신속상담

최고 실력, 최고 부품사용 개런티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비 서비스!

One Stop Tony's
그린우드 종합정비 그린우드 오토바디

Tel. 206-706-2778
8208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03

20년의 경력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일하는

김연정 부동산

YON KIM Managing Broker
Best Choice REALTY

253.227.6673
yon@bestchoicerealtywa.com

AI FORUM 강의

김홍연목사 최우리변호사 MORRIS KOO 대표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자”

제3차 미주서부 KCBMC 대회, 지난 7일~9일 페더럴웨이에서 성황리 개최
미주 한인 기독교 실업인 공동체 방향성과 사명 재확인한 시간으로 평가받아

미주 한인 기독교 실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과 비즈니스,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함께 고민하는 대규모 연합의 장인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소재 퍼포밍 아트&이벤트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홍연 목사(왼쪽)의 사회로 최우리 변호사(가운데)와 모리스 구 대표가 AI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제임스 임 기자> <관련기사 Page-9>

“친절하고 성실한 메디케어 전문”

메디케어 상담전문 이영이 보험

206.407.8478
youngyi712@gmail.com

가정의학 / 소아과 / 부인과 / 노인과 / 내과 / 정신건강 / 응급치료 / 각종예방접종

채정희 클리닉

ADVANCED FAMILYCARE MEDICINE

모든보험 | 스킨케어
원격진료 (Virtual Care) 가능

“10여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진료해드립니다.”

☎ 253-314-5742 레이크우드 부한플라자 내에 위치

광고 문의 206.779.5382

패티임 보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노후계획 무료상담

253-632-8904
생명보험/은퇴플랜/401K 롤오버/메디케어
E-mail : girlpatti1@gmail.com

벤슨 종합 동물병원

Animal Clinic of Benson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케어
믿고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Dr. Simon Kim
& Dr. Jaysoo Lee

Advanced
Veterinary
Care

animalclinicofbenson.com

첨단 수의학 진단 · 치과 · 종합검진 · 내과 · 정형외과 · 초음파 · 일반외과 · 국외 통관

10700 SE 208th St #204
Kent, WA 98031 253-852-6330

2027년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 · 광고접수

www.haninsosik.com
문의 : 206-779-5382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친절한

김양미 보험

메디케어전문

매년감 의료
통역경력

☎ 206-679-8301
✉ getcare8282@gmail.com

주방장 구함

Peking Garden Chinese Restaurant

북경가든

여기!

맞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짬뽕과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집

예약/주문
253.588.2399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9701 So. Tacoma Way #115 Lakewood, WA 98499

2025년 세금보고 시즌입니다.

**사업주 여러분,
2025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버텨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관세의 부담,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고물가 속에서도 사업을 지켜내기 위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는 마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현실 속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여러분은 늘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누군가는 숫자로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잠 못 이루던 밤과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던 책임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하루는 늘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오늘의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지켜내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세금보고의 시간이 아니라, 지난 한 해의 노력과 희생을 정리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절세를 통해 노후에는 더욱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즈니스 전문

절세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들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J&J 세무 회계법인 로펌

1201 PACIFIC AVE 600, TACOMA, WA 98402
OFFICE: 253.203.3137(8) / 253.400.7586

부동산의 모든 것, 구매와 매매의 전 과정을 시작에서 끝까지 완성합니다.

Built on Trust. Completed with Value.



Designate Broker
대표 책임 공인중개사

김수영

206.999.7989

sykbellevue@gmail.com

“이사철의 계절, 집 장만의 계절”

주택 ◆ 커머셜 (호텔, 모텔, 주유소, 투자성건물) ◆ 사업체 EB-5 (투자이민) ◆ E2 (소액투자) ◆ 부동산관리 ◆ 워싱턴주내 별장

Bainbridge Island 상가건물 & 61,855 sf. 상가건물건축 가능한(NSC)대지



\$1,890,000

- ▲ 건물 6,000sf · 대지 61,855sf(1,738평) ▲ Fully occupied, gross \$20 매우 낮은 월세 ▲ 동네 유일 성업중 그로서리 ▲ 주차 43대 가능 ▲ 20년 영업 유명 이태리언 식당 ▲ Upholstery 및 주차장 수입 포함 ▲ 현재 월 렌트 \$9,200 (곧 대폭 상승 예상) ▲ 요지 사거리 중심 Mixed Use Zone ▲ 상가·사무실·콘도·Storage 개발 가능 ▲ 유입인구 증가, 미래 투자성 높은 부동산 ▲ 우체국·법원·교회 인접 중심지

치킨 전문 식당



\$134,000

- ▲ 주인 은퇴 이유
- ▲ 수목금토 4일만 4시~12시까지 영업 중
- ▲ 매상 하루 \$1,000-\$1,200
- ▲ 월 순이익: \$10,000 이상
- ▲ 싼렌트: \$2,350 (모두 합하여서) 리스: 5-5
- ▲ 투 고 손님 많은 식당(1/3)
- ▲ 칸막이 방 3개, 테이블, 후드 설치되고, CCTV 설치, 쿨러, 새장비
- ▲ 주 6일 열고, 오전 11시 부터 영업하면 순이익 많이 오를 가능성 큼.



김수영 부동산 전속 협력회사 임원들과 함께

- 강력한 협력팀**
- 융자팀: 주택용자 비영주권자 용자 상업 용자 ● 스테이징 서비스
 - 전문 사진사 ● Property management 자매회사 ● 핸디맨/건축회사

김기호
253.651.3778
khkhelix@gmail.com

김수영
부동산
주택 | 커머셜 | 사업체

206.999.7989

Designated Broker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인 협회 2018 회장
sykbellevue@gmail.com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인 협회
WA Korean Designated Brokers Association

1085 103rd Ave NE Bellevue, WA 98004
최신 리스팅과 정보는 sueyoungkim.com 에서 확인하세요

제1회 “디아스포라” 사진공모전

우리의 뿌리, 우리의 땅
태평양 너머 한인의 이야기
2026년 제14회 한국문화주간 상반기 행사



● 공모 주제

- 1. 디아스포라 한인의 정체성** 가산점부여
(타국에 뿌리내린 삶, 기억, 문화, 세대의 이야기)
- 2. 미국 독립 250주년과 한국인** 가산점부여
(미국 사회 속 이민의 역사와 오늘의 역할)
- 3. 서북미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

● 응모 요강

- **응모대상** : 서북미 지역 거주 한인 및 비한인 누구나
(워싱턴, 오리건, 아이다호, 알래스카, 몬태나, BC 등 / 연령·경력 제한 없음)
- **촬영장비** : 스마트폰, 드론, 디지털 및 필름카메라 모두 가능
- **접수기간** : 2026년 4월 10일 ~ 6월 10일 자정 12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eattledaily@gmail.com)
- **출품방법** : 최근 3년 이내 촬영작 최대 3점 (JPG 또는 PNG / 최대 20MB)
- **유의사항** : 시 및 리터칭 작품은 원본 첨부 필수 / 작품 제목, 설명, 촬영장소 및 시기 기재 필수 /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없는 미수상작만 가능

● 심사 및 시상 <총상금 \$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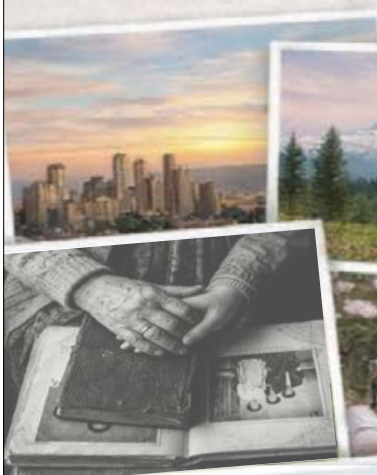
- **수상발표** : 2026년 6월 20일 (지역한인언론사 지면 및 온라인 발표)
- **시상내역** : 대상 \$500(1명) / 최우수상 \$300(2명) / 우수상 \$200(3명) +상패
입선 \$20 기프트카드(15명) / 시애틀 총영사상 \$200 기프트카드(1명) +상장
시애틀 교육원장상 \$100 기프트카드(청소년 2명) +상장

● 접수 및 문의 <시애틀코리아데일리>

- **이메일** : seattledaily@gmail.com · **홈페이지** : www.seattledaily.com



자세한 내용확인!



후원

대한민국 주시애틀 총영사관, 시애틀 한국교육원,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미주총연 서북미연합회, 광역시애틀 한인회, 타코마 한인회, 페더럴웨이 한인회,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대한부인회(KWA), 한인의날 워싱턴주 축제재단, 아메리카 K-팝 협회(AKA),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연합회,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PCC), Big Hug, 워싱턴 K-양상블, 서북미문인협회, 워싱턴 코랄, KAPAC Seattle, 한인생활상담소, 시애틀늘푸른연대, 시애틀진보연대, 권미경부동산, 페더럴웨이 청소년오케스트라, 시애틀폴락, Gallery B612, 한국작가회의 미주지회, 에밀리원 KAAW회장,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페더럴웨이통합한국학교, 시애틀통합한국학교, 벨뷰통합한국학교, 워싱턴주 체육협회, BetterProperties RE King, 밝은빛루터교회, 해송식당, 남도KoreanBBQ, 에이스 마사지케어
한국일보, 교차로, 미디어한국, 시애틀N, 조이시애틀, 스포츠서울, 우먼즈, KOAM TV, 라디오한국, KBS WA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attle



시애틀한국교육원
OFFICE OF KOREAN EDUCATION



참가선수들이 경기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회식 장면.



선수들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이별하기 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캐나다-워싱턴 OB 친선 축구경기 31년 전통 이어져

지난 9~10일 밴쿠버 OB팀 초청 친선경기 가져...가족 단위 참여 속 우정 다져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다"...오는 9월 캐나다 재회 약속도

워싱턴주와 캐나다 밴쿠버 한인 축구인들이 3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의 친선 경기를 통해 국경을 넘어선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워싱턴주 대한축구협회(회장 어민수)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OB 축구단(회장 고윤철)을 초청해 이틀간 친선 축구경기를 개최했다.

이번 경기는 1996년 뜻있는 축구인들의 교류로 시작된 이후 매년 4월에는 미국에서, 9월에는 캐나다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한인 동포 간 국제 친선 스포츠 행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밴쿠버 OB 축구단은 1995년 창단 이후 약 50여 명의 회원이 매주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밴쿠버 한인 축구계의 상징적인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초청팀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양측의 깊은 신뢰와 우정이 바탕이 된 행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 단위 참여가 늘어나며 단순한 경기 이상의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31년째를 맞은 올해 경기는 9일 페더럴 웨이 사할리 중학교 구장에서 1차전이, 10일 스틸레이크 구장에서 2차전이 각

각 열렸다. 특히 올해는 오는 6월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리는 전미주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워싱턴주 50대 대표팀을 포함해 총 3개 팀이 참가해 더욱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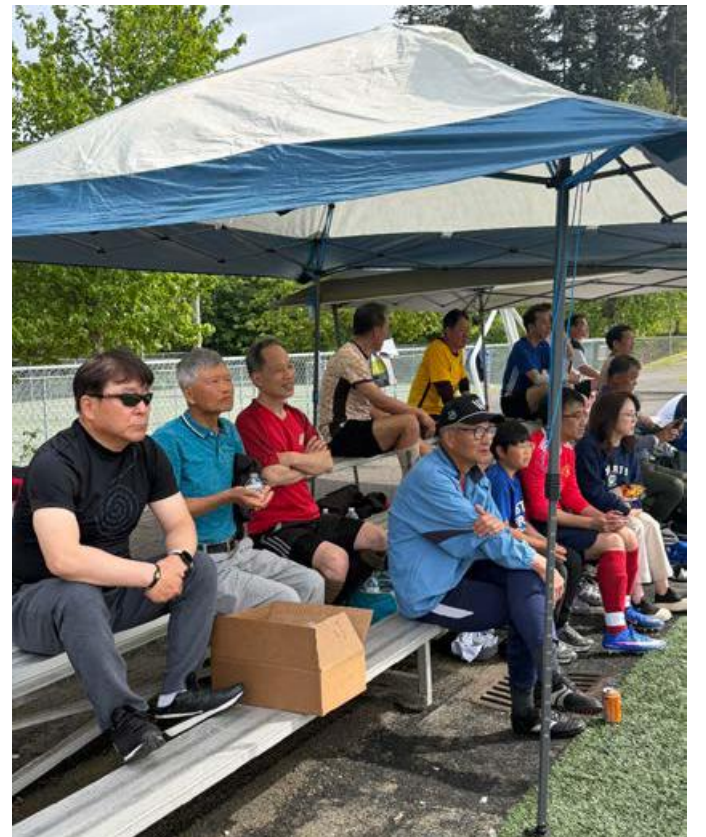
심판으로 참여한 이찬주 협회 고문은 "31년 동안 매 경기 심판을 맡아왔지만, 이번 경기처럼 승패를 떠나 웃으며 즐기는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다"며 "진정한 우정을 느낄 수 있어 보람이 컸다"고 말했다.

대회 첫날 개회식에서 송진의 워싱턴주 OB 단장은 "국경을 넘어 1년 만에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짧은 일정이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경기 후 양팀 선수 70여 명은 미락식당에서 만찬과 상견례를 갖고 교류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어민수 회장은 "31년간 이어져 온 축구 교류의 전통은 양팀 원로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간의 일정을 마친 양팀은 오는 9월 캐나다에서의 재회를 기약했다. 특히 워싱턴주 선수들이 일렬로 서서 캐나다 팀



이찬주 고문과 캐나다 고윤철 회장, 김진호 재무 등이 파티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를 배웅하는 모습은 오랜 시간 쌓아온 우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캐나다 밴쿠버팀 가족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이번 친선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간 화합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를 넘어 한인 사회의 연대와 세대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 대표팀 선수들의 능글픈 모습.



주심을 맡은 송진의 단장이 경기 전에 양 팀 선수들에게 페어플레이를 당부하고 있다.



송진의 단장이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22기 2분기 정기회의 개최

5월 16일 KOAM TV서...활동 보고·사업 계획·위촉장 전수 진행 활동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 논의할 예정...자문위원 참여 독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가 제22기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오는 5월 16일(토) 오후 5시,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KOAM TV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 30분 등록 및 리셉션으로 시작되며, 오후 5시부터 본회의가 진행된다. 협의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자들에게 정시 시작에 맞춰 입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제22기 시애틀협의회 활동 상황 보고를 비롯해 향후 사업 계획, 재정 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또한 신입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도 함께 진행돼 협의회 조직 강화와 역할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의 주제 발표도 준비돼 있으며,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사무처 안내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기회의는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각 분과위원장들의 협조를

통해 참석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다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는 소속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분과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참석자 확인에 협조를 요청했다.

Open 7 days a Week

I LOVE PHO

케이타링

소중한 자리를 따뜻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회의 · 행사 · 파티 · 가족모임까지
정성껏, 품격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은 아끼고, 품격은 더하세요.

메뉴 20가지중 선택 / 전화문의 **206-326-9272**





T. 425-401-6400



3900 Factoria Blvd SE, Suite C
Bellevue, WA 98006



벨뷰 남대문 식품 옆

모두를 위한 신문

MS

MEDIA GROUP CORP.

미디어한국 스포츠서울USA 오우먼즈

<p>미디어한국 MEDIA HANKOOK</p>	<p>발행인 박재영 편집인 박재영 전화 206.779.5382 mediahankookweekly@gmail.com</p>	<p>스포츠서울USA Sports Seoul SEATTLE 오우먼즈 The Oregon Times</p>
<p>Media Hankook is published by MS Media Group, Corp. 33110 Pacific Hwy S, #8 Federal Way, WA 98003, on every Friday. Subscription rate and the monthly delivery rate in most areas are \$15/month for minimum 4-day services per on month.</p>		
<p>미디어한국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 구독료 150달러를 체크나 머니오더, 또는 크레딧카드로 신청하시면 매주 정기적으로 우송하여 드립니다.</p>		
<p>Media Hankook is published weekly for \$150 per year by MS Media Group Corp.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p>		
<p>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Periodical Postage Paid at Federal Way and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MS Media Group Corp.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p>		



광역시애틀한인회

GREATER SEATTLE KOREAN ASSOCIATION

신뢰받는 메신저,
소상공인을 위한 알림이 시애틀한인회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

Supported by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워싱턴주 상무부 소상공업반등네트워크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의 파트너

“코비드로 인해 타격받은 워싱턴주 소상공업의 회복과 번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공정하게 지원합니다. 특별히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듯한 사각지대에 계신 동포 소상공업체에게 현사업 운영에 관련된 간단한 번역, 조언과 기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연계 기관과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206-669-2578



오스카양 변호사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민사소송 및 계약
- 비즈니스 법 (고용이슈 포함)
- 부동산 법
- 상속/자산 관련 법



광고 보신분에 한하여
오피스 상담시 첫 상담은 특별가로 해드립니다
전화 상담시 선불 30% Discount해드립니다

Q. 부동산 또는 사업 거래, 협상, 및 계약서 형성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A. 저희는 고객들의 이런 갈등 등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누구의 잘못이고 소송 여부에 더 쉽게 결정 하 실 수 있도록 첫 상담을 잡으세요.

Q. 직원으로써, 아님 고용주로서 고용 분쟁 이 있으신 가요?

A. 저희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토록 진심으로 노력하고, 이미 커졌으면 당신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Q. 채무자에게서 돈을 못 받거나 채권자가 제대로 채무자의 권한을 존중 안해주나요?

A.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 채무자들이나 채권자들을 대변해오고 있습니다. 첫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전에 몰랐던 점들과 잘 못 아시고 계신 점들을 알게 되고, 그 잘못 아시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만불까지도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방문해주세요.

가정법

-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무분쟁 이혼
- 이의 제기된 이혼 분쟁/소송
- 가족 비즈니스 및 다른 자산 분할
- 양육권 및 양육비/배우자 생활 보조비



변호사 사무실
206) 979-7081 (한글 사무직원)
360) 218-7273 (오피스)
team3@esberrylaw.com

Factoria 13555 SE 36th St STE 100 Bellevue, WA 98006
Downtown 1400 112th Ave SE STE 100 Bellevue, WA 98004

다트머스 BA
프랑스 소재 인시아드 경영대 MBA
하버드 정치 행정대 MPP
코넬 법대 JD



엠마부동산

레스토랑 매매

좋은 조건의 **비즈니스 리스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01

타코마 테리아끼

일매상

\$2,800

- ▶ 종업원으로만 진행중
- ▶ 부부가 일하면 높은 수익보장

매매가 **\$ 350,000**

02

타코마 테리아끼

일매상

\$3,500

- ▶ 저렴한 렌트비
- ▶ SBA용자 가능합니다

매매가 **\$ 520,000**

03

페더럴웨이 레스토랑

일매상

\$2,500

- ▶ 손쉬운 메뉴로 요리걱정없는 운영
- ▶ 저렴한 렌트비 SBA 용자 가능 5만불 다운으로 인수가능

매매가 **\$ 320,000**

좋은 매물이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엠마 부동산



궁금한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고객님께 맞춤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mma Park **206-688-0780** | **Emmapark0780@gmail.com**



김흥연 목사(왼쪽)의 사회로 최우리 변호사(가운데)와 모리스 구 대표가 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을 하고 있다.



시애틀지회 최명희 지회장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자”

제3차 미주서부 KCBMC 대회, 지난 7일~9일 페더럴웨이에서 성황리 개최 미주 한인 기독교 실업인 공동체 방향성과 사명 재확인한 시간으로 평가받아

미주 한인 기독교 실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과 비즈니스,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함께 고민하는 대규모 연합의 장이 시애틀에서 펼쳐졌다.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소재 퍼포밍 아트스&이벤트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자(로마서 12장 2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미주 전역의 CBMC 회원들을 비롯해 한국, 유럽, 중국 등지의 지도자들과 차세대 리더, 선교사, 목회자들이 대거 참여해 사흘간 뜨거운 교류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지역 모임을 넘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실업인과 전문가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Come & See! Kingdom Of God”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대와 지역, 직업을 초월한 연합과 섬김의 정신이 강조되며, 글로벌 한인 기독교 실업인 공동체의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회 준비위원회 기도 모임과 찬양순

서 이어 황선철 초대총회장의 대표 기도로 시작된 대회 첫날에는 시애틀 형제교회 김성완 목사가 ‘성공을 넘어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CBMC 비전 사역 소개와 환영식을 겸한 저녁 집회가 진행됐다. 오윤호 총연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의 중심에서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대회가 각자의 삶과 일터에서 변화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미주, 유럽, 중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장세호 한국 KCBMC 중앙회장은 “일터는 단순한 생업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리”라고 밝혔고, 윤요한 준비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종열 중국 KCBMC 총무는 “지혜로운 열 처녀처럼 깨어 준비된 리더로서 일터를 통해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문광순 유럽 총연회장도 “모든 CBMC 회원은 하나님이 준

비즈니스 영적 군사”라며 선교적 비즈니스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들의 메시지가 이어지며 이번 대회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첫날 집회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이어진 장세호 한국 KCBMC 중앙회장의 강의와 김요셉 목사의 설교, 브라이언 김의 찬양을 결단인 간증 순서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예배와 강연을 넘어 다양한 포럼과 특강이 이어지며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했다. 특히 AI 포럼, 일터 사역, 선교 전략, 신앙과 비즈니스 통합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패널 토론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둘째 날 점심 식사 후, 김흥연 목사의 사회로 최우리 변호사와 모리스 구 대표가 진행한 AI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신앙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기술의 발전을 단순한 도구로 보

는 것을 넘어,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일터 사역과 선교 전략 세션에서는 직장 사역과 사업장이 곧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비즈니스 현장에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통찰을 나눴다.

신앙과 비즈니스 통합을 다룬 시간에서는 신앙을 개인적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터 전체로 확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또한 둘째 날에는 평화 부채춤과 셋별 무용단의 공연, 은빛나래무용단의 공연, 김권중씨의 색소폰 연주, 김유승 지휘자가 이끄는 코랄합창단의 합창 등이 이어지며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둘째 날 집회를 부드럽게 연결해줬다.

둘째 날 저녁에는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 대회 관계자는 둘째 날 행사를 마무리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곧 CBMC의 미래”라며 “세대 간 연합과 멘토링이 활발히 이루어진 점이 이

번 대회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행사 시간 내내 곳곳에서는 “변화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은 서로 교제하며 공동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파송예배와 축복 기도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 말씀은 오정현 목사가 ‘최선을 기다리는 명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했으며, 감사패, 공로패 전달, 파송식 비전 선포 등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집회 후에 각자의 일터와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는 참석자들은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이는 단순한 폐회가 아닌, 사흘간의 경험을 삶으로 이어가겠다는 선언적인 순간이었다.

한편, 이번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는 신앙과 비즈니스,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연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미주 한인 기독교 실업인 공동체의 방향성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평가받았다.

시애틀코리아네트워크 제임스 임 기자



샌프란시스코지회 오미자씨가 간증을 하고 있다.



셋별무용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다.

페더럴웨이 “**건강한 복음** **새소망교회** **중심 교회**”



SUNDAY AM 11시 예배
WORSHIP PM 02시 열린찬양예배

화,수,목, 금요일 오후 7시 찬양과 기도
(예배 전 오후 6시에 저녁식사와 친목)



즐거운 찬양 공간



열린 예배 공간



성도님들 친교

“**마음을 채우는 예배**”

새소망교회는 1.5세 젊은 목회자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교회



처음이어도 괜찮고, 다시 와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교회입니다.
청년을 품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젊은 목회자와 함께하는 열린 예배
누구든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청년들이 편하게 모이는 열린 교회**”
신앙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Contact Us

✉ lsohn77@yahoo.com

📍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253) 508-8902

www.newhopecommunitycenter.com





허만 법률 그룹

3대를 이어온 변호사 가문

창립자 Karl Herrmann(1915-1997) : 전 상원의원 및 보험위원



“고객 한분 한분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교통사고 전문 허만 법률 그룹

사고로 다치셨습니까?
저희가 곁에 있습니다

창립70년이 넘게, 저희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해 왔습니다.
고객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일도 크게 보는 변호사
오늘도 고객만을 생각하는 변호사 찰스허만이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시애틀 · 타코마

페이지 리 (Paige K. Lee)

Cell: 206.773.8180
Direct: 206.492.7722
Fax: 206.492.7723
E-mail: paige@hlg.lawyer

교통사고

- 각종 상해사고/ 목허리부상
- 부당한 죽음/ 보행자 사고
- 뇌손상 사고/ 낙상사고
- 오토바이 사고/ 비행기 사고
- 제조물로 인한 상해



시애틀 · 타코마

줄리 황 (Julie Hwang)

Cell: 206.409.4611
Direct: 206.457.4200
Fax: 206.457.4201
E-mail: julie@hlg.lawyer

www.hlg.lawyer

시애틀 사무실

505 5th Ave. S, Suite 330 Seattle, WA 98104
T_206-625-9104
F_206-682-6710

타코마 사무실

1535 Tacoma Ave. S. Tacoma, WA 98402
T_253-627-8142
F_253-627-1835

시애틀 스마트시티 혁신 한자리에

KSC 시애틀, 오는 6월 4일 컨벤션센터서 'Smart City Innovation Showcase' 개최
서은지 총영사·브라이언 서랫 시애틀 부시장 등 참석...기술 피칭·네트워킹까지 진행

시애틀에서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과 글로벌 협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열린다.

KSC Seattle(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시애틀)은 오는 6월 4일 시애틀 컨벤션센터에서 'Smart City Innovation Showcas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

술을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 부스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특히 본 행사에 앞서 오후 2시 20분에는 발표자와 전시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사진 촬영이 예정돼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자들은 오후 1시 50분

까지 행사장에 도착해 사전 준비에 협조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개회사 및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서은지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를 비롯해 시애틀 부시장 Brian Surratt, 워싱턴주 정부 수석 정책 고문 Beau Perschbacher 등이 참여해 스마트시티 정책과 혁신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피칭이 이어지며,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한다. 이후 오후 4시 30분부터는 부스 방문과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돼 참가자 간 교류와 협력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사는 오후 6시 폐회로 마무리된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스마트시티 분야의 기술 교류뿐 아니라 한·미 간 협력 확대와 스타트업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비는 주최 측이 지원하며, 행사장 주차장 이용 후 등록 데스크에서 주차권을 수령할 수 있다.

메디케어 보험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입

플랜에 따라 혜택도 다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좋은
플랜으로 선택하세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플랜변경 기간입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에이전트들에게서
무료로 자세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단계. 1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하십시오.

일반 메디케어 (연방 정부에서 제공)



병원 입원 및 입원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의사 방문 및 외래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선택사항 1 또는 선택사항 2

일반 메디케어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추가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메디케어 보조 보험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일반 메디케어에 수반되는
회원 지출액 일부에 대한
비용 지불에 도움을 줍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파트 A (병원보험) 및
파트 B (의료보험)를
하나의 플랜에서 통합합니다.



보통 처방약 혜택이 포함됩니다.

일반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저희에게
말겨 주시면
됩니다.

단계. 2

귀하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한지 결정하십시오.
추가 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무엇이든 대답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연 종합보험
Federal Way
253-228-5295
Tacoma
253-335-3895
jpinsurance.us@gmail.com
JP INSURANCE

온정숙 종합보험
Cell
253-353-9730
Office
253-503-6441
jungvaughn62@comcast.net
VAUGHN Insurance Services, LLC

패티임 보험
Cell
253-632-8904
Office
253-335-3895
girlpatti1@gmail.net

**이백희
메디케어 전문보험**
Cell
253-228-7006
bkins.medicare@gmail.com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

올 부동산 (구) 태양 since 2002 Year (RealtyAll.com)



주택/아파트/상가/모텔/호텔/주유소/그로서리/식당/세탁소/각종 사업체/땅/부동산 건물 관리
고객 여러분의 귀중한 자산을 늘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6.228.4989
도병호 대표 Broker
Brian Do
briando@realtyall.com



253-205-5553
도은영 Monica Kim
eunyoung@gmail.com



김 원현	206-370-2382	이 은영	206-377-9192	HANNA LEE	253-365-8324	KIM,JONG G	206-852-9855
이 순열	253-335-1965	이 덕기	206-229-7407	이종성	509-863-6212	KIM,MYUNG JOON	206-228-4989
제니퍼 오	206-228-0591	KIM, ARTHUR J	206-859-9988	김용규	206-335-8949	KIM, LOUIS	253-722-3067
이 내권	206-793-0822	KIM, VERONICA	206-436-4989	부진실	253-905-2772	TERRY CHOI	213-220-7220
이 영철	253-777-6714	황 인성	206-306-4336	김강식	206-949-6197	www.realtyall.com 에서 리스팅을 확인!	
정 정이	206-200-1444	엠마 박	206-688-0780	ROBERT KIM	253-576-3939		

▶ **올부동산과 함께할 에이전트(Broker)를 모집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



김원현 Won Kim
206.370.2382
wonkim1974@hotmail.com

Veronica Kim / 206-235-5353
베로니카 김 / veronicavk0101@gmail.com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테리야기 / 음식점

- | | | |
|--------------------------|------------------|----------------------------------|
| 1.테리야끼 | \$550,000 | 일매상: \$4,000 |
| 2.테리야끼 | \$530,000 | 일매상: \$3,500 |
| 3.테리야끼 | \$230,000 | 일매상: \$1,700 |
| 4.테리야끼 | \$280,000 | 일매상: \$2,300 |
| 5.테리야끼 | \$180,000 | 일매상: \$2,000 |
| 6.테리야끼&Sushi | \$50,000 | 일매상: \$1,000
(Owner Carry 가능) |
| 7.테리야끼
(부동산포함) | \$830,000 | 일매상: \$2,200 |
| 8.일본식당
(부동산포함) | \$880,000 | 일매상: \$2,400 |

Grocery

- | | |
|--------------|--------------------------------|
| 1. \$105,000 | 월매상: \$55,000 |
| 2. \$280,000 | 월매상: \$65,000 |
| 3. \$300,000 | 월매상: \$80,000 |
| 4. \$590,000 | 월매상: \$95,000 |
| 5. \$600,000 | 월매상: \$110,000 |
| 6. \$100,000 | 월매상: \$45,000 (Owner Carry 가능) |

Motel

\$1,750,000 Year Income: \$450,000 (Room: 29)

상가건물

\$2,900,000 CAP: 6%



WA Society of Korean CPAs
워싱턴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돕는

이동은 공인회계사
Diane Lee, CPA

☎ 425-678-0521
✉ dianelee CPA@hotmail.com
🏠 www.dianelee CPA.com
18514 Highway 99 Ste E,
Lynnwood, WA 98037

SKJ & Company, P.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고객의 확실한 길잡이

정세계 공인회계사
Seke Jung, CPA

☎ 206-367-6782
✉ info@skjcpa.com
🏠 www.skjcpa.com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

SHK GROUP PLLC
CPA & BUSINESS ADVISORS

Trusted Tax & Accounting

김성훈 공인회계사
Seong Hoon Kim, CPA

☎ 425-869-3670
✉ info@shkgroup.com
🏠 www.shkgroup.com
9 Lake Bellevue Dr, Ste 216, Bellevue, WA 98005 (Bellevue Office)
34400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Federal Way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윤중 공인회계사
Arnie Kim, CPA

☎ 253-984-9530
✉ arnie@kkcpa.us
🏠 www.kimnkimcpa.com
9602 S. Tacoma Way, Ste B
Lakewood, WA 98499 (Tacoma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흥중 공인회계사
Dennis Kim, CPA

☎ 425-640-3435
✉ dennis@kkcpa.us
🏠 www.kimnkimcpa.com
23416 Hwy 99, Ste B
Edmonds, WA 98026 (Edmonds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덕중 공인회계사
James Kim, CPA

☎ 425-223-5577
✉ james@kkcpa.us
🏠 www.kimnkimcpa.com
11542 NE 21st Street
Bellevue, WA 98004 (Bellevue Office)

PH CPA, PLLC
ACCOUNTING & TAX SERVICES

황바로 공인회계사
Paul Hwang, CPA

☎ 425-742-7675
FAX : 425-650-2972
✉ info@phcpapllc.com
4629 168th St SW Ste H
Lynnwood, WA 98037

Sora Son CPA, LLC.

손소라 공인회계사
Sora Son, CPA

☎ 425-361-7942
✉ sora@soncpa.net
19105 36th Ave W Ste 209,
Lynnwood WA 98036

ALISA NA
명확한 맞춤회계

나은숙 공인회계사
Alisa Na, CPA

☎ 425-744-2742
✉ Service@alisanacpa.com
🏠 alisanacpa.com
8319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투명한 관리, 확실한 신뢰로 비즈니스의 내일을 함께 그립니다.

김호순 공인회계사
Danielle H.S. Kim, CPA

☎ 253-839-9301
✉ dkimcpa1@hotmail.com
🏠 www.daniellekimcpa.com
28815 Pacific Highway S. Ste 8,
Federal Way, WA 98003

ASPEN
Financial & Tax Services

Your trusted CPA for personal and business finances

사브리나향 공인회계사
Sabrina Hwang, CPA

☎ 425-373-0380
✉ sabrinahwang@cpa.com
🏠 www.aspenfinancialtax.com
14205 SE 36th St., Suite 100,
Bellevue, WA 98006

저희 WSKCPA
(회장 정세계 / 총무 김호순)에서는 정기세미나와 미주총회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계사님께서는 저희 협회(info@wskcpa.org)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SKCPA
WA Society of Korean CPAs
워싱턴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시애틀 다운타운에 무료 음수대 7곳 등장... FIFA 월드컵 손님맞이 채비

- ▶ 시애틀 공공시설국(SPU), 다운타운에 무료 물병 충전 음수대 7곳 설치
- ▶ 올여름 FIFA 월드컵 6경기 개최 앞두고 방문객 편의·폭염 대비
- ▶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효과도 기대... 시애틀 작가 스티비 샤오 디자인 입혀

시애틀 다운타운 거리에서 이제 누구나 무료로 자신의 물병에 식수를 다시 채워 마실 수 있게 됐다. 시애틀 공공시설국(Seattle Public Utilities·SPU)이 최근 다운타운 곳곳에 무료 음수대 7곳을 새로 설치했다. 이번에 들어선 음수대는 재사용이 가능한 물병을 손쉽게 채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거리 모퉁이에 자리한 충전식 음수대는 시애틀 출신 작가 스티비 샤오(Stevie Shao)의 일러스트로 장식돼 거리 풍경에도 산뜻함을 더하고 있다. 음수대 한 대당 설치비용은 약 5,000달러 수준이다.

◆ 올여름 FIFA 월드컵 손님맞이 채비 이번 음수대 설치의 단순한 편의 시설 확충이 아니라, 올여름 시애틀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염두에 둔 사전 준비의 일환이다. 시애틀은 올해 여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경기

6경기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시애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객들이 다운타운을 걸어 다니며 거리에서 손쉽게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미리 갖춰 둔 것이다. 시애틀 공공시설국은 지난 5월 4일 '음용수 주간(Drinking Water Week)'에 맞춰 새 음수대들을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 "점점 잦아지는 폭염에 대비"...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효과도 SPU는 이번 음수대 설치 배경에 대해 시애틀 지역에서 갈수록 빈번하고 강도가 세지고 있는 여름철 폭염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SPU의 카린 테보(Kahreen Tebeau)는 액시오스(Axios)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여름철 우리 지역에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는 폭염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

는 이어 "폭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이 물병을 다시 채우는 일을 좀 더 쉽게 만들고 싶었고, 동시에 일 년 내내 일회용 플라스틱 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북서부의 한때 여름에도 비교적 선선한 기후로 잘 알려진 지역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화씨 100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 다운타운 7곳에 분산 설치... 위치는 어디? 새로 설치된 무료 음수대 7곳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000 2nd Ave. 501 Olive Way 1398 3rd Ave. 898 3rd Ave. 298 James St. 100 Pike St. 201 Occidental Ave. 대체로 시애틀 다운타운의 주요 보행 동선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그리고 출퇴근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



[사진=시애틀시 제공] 시애틀 다운타운 거리에서 이제 누구나 무료로 자신의 물병에 식수를 다시 채워 마실 수 있게 됐다

을 중심으로 분산 배치됐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인근(100 Pike St.)과 파이오니어 스퀘어 지역(201 Occidental Ave.), 그리고 다운타운 한복판의 사무실 밀집 구역까지 폭넓게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시애틀을 찾는 한인 관광객이나 다운타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더운 여름철 외출 시 휴대용 물병을 챙겨 가면 추가 비용 없이

식수를 보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출처: Seattle Public Utilities (SPU) 보도자료, "Fill up, Seattle: New water stations highlight Drinking Water Week" (2026.5.4, atyourservice.seattle.gov) Seattle Public Utilities 카린 테보(Kahreen Tebeau) 이메일 성명 <시애틀코리아데일리>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광고접수**
광고문의 206.779.5382

J-1 · H2B · EB3

취업스폰서를 모십니다

★ 한국에서 미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고, 현재 사업체 운영에 믿고 신뢰할 직원을 원하십니까? 수시로 직원 부족으로 고용주가 대신 일해야 하는 고민을 글로벌 인재 양성 리쿠르먼트 회사 **Entryusa.co** 에서 해결해드립니다.

- ▶ **자격기준:** 현 사업체가 워싱턴주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2년 이상 세금 보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 **사업체 종류:** 호텔, 식당, 그로서리, 스모크 샵, 세탁소, 유통 회사, 전기 및 전화 회사, 델리 및 제과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미용 및 네일, 스킨케어, 회계사무직, 법률사무직, 요가, 필라테스 강사 등

연락은 먼저 이메일로 해주세요. ▲Email: mynwcf23@gmail.com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을 받은 후 직접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서 상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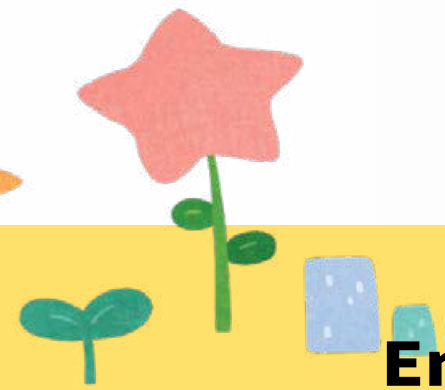
워싱턴주 유일의

한국어 방송

라디오한국이 달라져요!

27주년을 맞은 라디오한국이
뉴스, 정보, 음악중심으로
편성표를 대폭 개편합니다!

KSUH 1450 AM
KWYZ 1230 AM
FM 102.1 MHz



Tel 253-815-1212
Email : info@radiohankook.com
31919 1st Ave S, suite 206 Federal Way, WA. 98003



상공회의소 교육부 담당 이혜리 씨가 사회를 보고 있다.



오명규 회장.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5월 타운홀 미팅 모습.

"주정부 계약은 비즈니스 신뢰도 높이는 지름길"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 지난 9일 타코마 소재 APCC에서 5월 정례 타운홀 개최 한인 소상공인 실용 정보 종합세트 제공...주정부 조달 · 절수 · 전기차 · SNS 마케팅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KACCWA · 회장 오명규, 이사장 은지연)가 지난 9일 (토) 오전 10시 30분 타코마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Asia Pacific Cultural Center)에서 5월 정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주정부 조달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절수 프로그램, 전기차(EV) 지원 혜택, 디지털 마케팅까지 한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4개 주제를 90분간 압축적으로 다뤘다.

이번 타운홀에서는 서인석 APCC이사장, 권희룡 워싱턴주 체육회 회장, 이구 페터럴웨이 사무총장, 한국에서 개발된 실시간 AI 한 · 영 동시통역 앱Bizcrush의 '그로스 매니저' 양현철 씨와 Financ Advisor & Wealth Planner 구분성 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 "주정부 계약, 작은 비즈니스에도 큰 의미"...오명규 회장의 조언

첫 세션은 오명규 회장(데이비드 오)이 직접 진행한 워싱턴 주정부 조달사업 안내였다. 냉장 · 냉동 · 냉난방 · 전기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오 회장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오 회장은 "주정부는 워싱턴주에서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바이어"라며 "내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작아도 바이어가 튼튼하다면 사업이 위촉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면으로 까다로운 계약 절차를 통과해 정부 계약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사업체의 신뢰도(credential)가 크게 올라가며, 이는 사적 영역의 비즈니스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주정부 계약을 따고 난 뒤 민간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

지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고 덧붙였다. 조달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금지 품목이 아니면 주정부에서 다 구매한다고 보면 된다"며 연필 한 자루부터 신선 식자재, 사무용품, 호텔 숙박, 항공권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고 안내했다. 한식당 · 그로서리 · 호텔 등 한인 비즈니스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워싱턴주 조달청 격인 DES(Department of Enterprise Services)의 정책 방향 전환이다. 오 회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이전에는 소수계 · 소규모 다양성 기업의 계약 진입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으나, 3월 이후로는 이미 계약을 따낸 업체들이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다만 신규 계약 진입 지원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2026년부터 워싱턴 전자조달시스템 WEBS(Washington Electronic Business System) 등록 시 EIN(미국 사업자번호) 입력이 의무가 아니게 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한국에 소재한 업체들도 주정부 조달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 회장은 "워싱턴주에 있든 없든 등록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이후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컨설팅 등 별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상공회의소는 6월 또는 7월에 주정부 조달사업만을 주제로 한 별도 오픈하우스를 준비 중이며, 실제 주정부 사업을 수행 중인 한인 업체들이 참여해 구체적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공짜로 받는 절수 컨설팅 · 전기차 충전기 리베이트

(Seattle Public Utilities · SPU) 소속 이어나 담당자가 진행한 절수 프로그램 안내였다. 이 담당자는 시애틀 등 19개 유틸리티 기관이 참여하는 '세이빙 워터 파트너십(Saving Water Partnership)'을 소개하며, 욕실 샤워기 · 수도꼭지용 에어레이터(공기 혼합 장치) 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컨설팅 팀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대형 냉장고, 노후 배관, 누수 등으로 수도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원인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무료로 운영된다. 변기 교체, 정원 · 잔디용 관개 시설 개선 등에 대한 리베이트 프로그램도 있으며, 가정용뿐 아니라 상업용 시설에도 적용된다. 이 담당자는 "낡은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매달 수도 요금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총장 헤이든 황(Hayden Hwang)이 퓨젯사운드에너지(Puget Sound Energy · PSE)의 전기차 운전자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가정용 충전기의 경우 시간당 25마일이 충전되는 레벨 2(240V) 충전기를 설치하면 최대 3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설치 비용으로 최대 600달러까지 지원된다. 시간당 2~5마일 충전이 가능한 레벨 1(120V)은 충전 속도가 느려 레벨 2 설치가 권장된다. 이와 별도로 등록 시 50달러를 지급하는 'Flex EV' 프로그램은 전력 사용량이 높은 시간대에 차량 충전을 자동 조정해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아파트 · 콘도 등 다세대 주택은 공용 레벨 2 충전기 설치 및 유지 비용을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5월 타운홀 미팅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대 100% 지원받을 수 있고, 직장 내 충전기 설치 역시 같은 비율로 지원된다. 헤이든 사무총장은 "기름값이 높은 만큼 신차로 바꿀 때는 전기차를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 인스타그램 · 캔바로 무료 마케팅...

카테고리 설정이 수익화 핵심" 마지막 세션은 디아 강(Dia Kang) 부회장이 진행한 디지털 마케팅 실습이었다. 강 부회장은 "사람들이 쇼핑 전 모든 정보를 휴대폰으로 검색 · 비교하는 시대"라며 인스타그램과 무료 디자인 툴 캔바(Canva) 활용법을 직접 시연했다. 강 부회장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인스타그램 프로필의 '카테고리' 설정이었다. 그는 "프로필 편집(Edit Profile) 메뉴에서 비즈니스 또는 인플루언서 카테고리를 반드시 설정해야 수익화가 가능하다"며 "리크루터들이 '시애틀 푸드 크리에이터', '코리아 푸드' 같은 카테고리로 계정을 검색하기 때문에 노출에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자기소개) 영역에는 연락처를 반드시 넣되, 사업체는 주소와 매장 전화번호를, 개인 계정은 이메일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스팸 전화가 쇄도한다"는 실용

적 조언도 곁들였다. 인스타그램용 영상은 반드시 세로 비율로 촬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션 말미에는 참석자들이 돌씩 짝을 지어 서로의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1분 짜리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실습도 진행됐다. 강 부회장은 "헤이든 사무총장이 어제 만든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15만 5천 회를 넘었다"며 짧은 시간 안에 무료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 회원이 "한국 업체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컨설팅 형태로 도와줘도 되는지" 묻는 등 활발한 질의 응답도 이어졌다. 오 회장은 "비영리 단체인 상공회의소 차원에서는 회원 서비스 범위로 제한되지만,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컨설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다만 상공회의소 임원으로서의 역할과 개인 사업의 이해 충돌은 늘 조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인상공회의소는 매월 정례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한인 비즈니스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 행사 참가 문의는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총장 헤이든 황(312-841-3222)에게 하면 된다. (기사 · 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Federal Way
병원 스페이스 렌트
253-941-6779
chachiropractic@gmail.com

Office space Rent for
L.Ac, DPT, LMT or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3Tx rooms, Reception area , restroom
Ask for Lease special !

Joyful
조이플

MISSION

2026

제 6 회

조이플 선교합창단
Joyful Mission Choir Concert

어린이를 위한 Charity Concert for Children 자선 음악회



Republic of Burundi



부룬디(아프리카)
고아원 어린이



Republic of Kenya



케냐(아프리카)
고아원 어린이



Ukraine



우크라이나(동유럽)
전쟁난민 어린이



Kingdom of Cambodia



캄보디아(동남 아시아)
빈민 학교 어린이

5월17일(주일) 오후 5시, May 17th(Sun) 5pm

타코마 중앙 장로교회(TCPC)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대표 장현자 박사



유직 디렉터 조혜경



지휘 박상영



반주 김지연

주최 | 조이플 선교회
JOYFUL MISSION

주관 | 조이플 선교 합창단
JOYFUL MISSION CHOIR

253-223-7560 www.joyfulmission.org

협찬 | 미디어 한국, 시애틀 기독교일보, 라디오 한국





대한부인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6일 오전 KWA 구 사옥 급식 장소에서 어버이날 기념 잔치를 열었다.



대한부인회 이연이 부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연이 부이사장이 참석한 이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오늘만큼은 다 내려놓고 즐기세요"

대한부인회, 6일 타코마서 한인 어르신 15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큰 잔치 개최
피터 안사라 사무총장, "대한부인회는 한국 어머니들이 만든 단체...자부심 가지셔야"

대한부인회(KWA·이사장 박명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6일 오전 11시 30분 타코마 96가 KWA 구 사옥 급식 장소에서 어버이날 기념 잔치를 열었다. 이날 한인 어르신 15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이연이 부이사장, 피터 안사라 사무총장 등 임직원과 이사진이 한자리에 모여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서은지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도 구광일 문화영사와 함께 행사장을 찾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어버이날 인사를 나눴다.

◆ 150여 어르신과 임직원·봉사자 한자리에... "준비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 행사 사회를 맡은 이연이 부이사장은 첫 인사에서 "이 행사에 나오면 직원들과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을 잊을 때가 많다"며 "우선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버이날의 유래도 직접 소개했다. 이 부이사장은 "어버이날의 시작은 어머니날로,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당시 군인들의 청결과 안전을 위해 일하던 사회 활동가 앤 자비스(Anne Jarvis)가 시작한 것"이라며 "그분이 돌아가신 뒤 따님인 애나 자비스(Anna Jarvis)가 1904년 어머니날을 정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1956년 어머니날로 처음 시작됐다"가 1973년 어버이날이라는

법정 기념일로 바뀌면서 어머니님과 아버지님 모든 분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날이 됐다"며 "부모님은 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면서도 항상 '내가 더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 오늘 만큼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충분히 즐기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연이 부이사장은 또 행사 도중 다시 무대에 올라 참석한 임원진을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소개했다. 신경자 총무이사, 신도형 명예이사, 존 데므론(John Demron) 명예이사, 이기열 이사, 수진 크로우(Sujin Crow) 이사 등 전·현직 이사진이 무대 위에서 인사를 했고, 이들이 직접 음식과 떡을 준비해 어르신들을 챙기는 봉사 일선에 함께 나섰다. 이날 점심 식사는 평소보다 정성을 더한 메뉴로 차려졌다. 떡 세트도 따로 준비돼 한 분씩 나눠 드리고, 더 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추가로 떡이 제공돼 잔칫집 분위기를 더했다.

◆ 피터 안사라 사무총장의 몽클한 어머니 회상...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날 행사에서 가장 몽클한 순간은 피터 안사라 사무총장의 인사 시간이었다. 영어로 진행된 그의 인사를 이연이 부이사장이 한국어로 통역했다.

안사라 사무총장은 "내가 처음 KWA에 부임한 때가 2009년이고, 그해 처음

참석한 어버이날 행사가 또렷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날 떠 오른 것이 바로 내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42세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어 "어머니도, 할머니도 모두 떠나셨지만, 풍성한 자연과 아름다움을 지닌 많은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안사라 사무총장은 자신의 군 복무 시절 일화도 꺼냈다. "내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뵈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 작별 인사를 드릴 때였다"며 "공군 비행 부대에 복무하며 한국 오산 상공을 자주 비행했다.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16~17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한부인회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만든 단체다.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여성들이 모여 시작한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한국적 정서와 뜨거운 마음 덕분에 지금은 워싱턴주 전역에 걸쳐 약 2,000명의 직원을 둔 큰 기관으로 자랐다"며 "그 어머니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 이 건물도, 저 같은 직원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도 없었을 것이다. 한국 문화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통역되는 동안 행사장 곳곳

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보였다.

◆ 권다향 명창 국악한마당에 어르신들 덩실덩실... 서은지 총영사도 격려 서은지 총영사는 인사말에서 "타코마 노인회는 어버이날마다 찾아왔는데,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셔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을까 했다"며 "대한부인회가 매주 음식을 대접하시고 오늘 또 큰 어버이날 행사를 한다고 들어 겸사겸사 찾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주시애틀 총영사로 부임한 지 4년이 됐고, 45년 영사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영사로 부임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서 총영사는 한국 문화의 위상도 어르신들에게 전했다. "K팝, 영화 '기생충',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데에는 그 이전 세대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이 지역에서 한인 메릴랜드 스트리랜드 연방 하원의원도 배출했고, 최근에는 뉴저지에서 한인 연방 상원의원도 나왔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미국에 처음 오셔서 일궈오신 노력과 헌신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후손들이 한국 문화와 한인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어버이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마음껏 즐기시고 건

강하고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아내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성훈 타코마 한미노인회장은 "대한부인회가 평소 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노인들이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늘 배려해 주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올린 주인공은 권다향 명창이 이끄는 '국악한마당' 공연팀이었다. 권 명창과 두 명의 동료 무대에 올라 익숙한 우리 가락을 부르자,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권 명창은 무대에 오르기 전 "공연이라기보다 여러분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내려고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 함께 나오셔서 춤추고 노래하고 손뼉 치며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국악한마당은 매년 대한부인회 어버이날 행사에 무료로 출연하며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 봉사 일선에서 음식과 떡을 준비한 신도형·존 데므론 명예이사는 "기쁜 마음으로 식사와 떡을 준비했다. 어머니님 노래를 부르실 때 눈물이 났다.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떠올랐다"며 "늘 보이던 어르신들이 안 보이는 것도 안타깝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피터 안사라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은지 총영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성훈 타코마 한미노인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다향 명창이 이끄는 '국악한마당'이 공연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4가구 중 1곳 '캘프레시' 의존

SNAP 예산 1870억 달러 삭감 여파...300만 명 이미 혜택 상실 전문가들 "아동·노인·이민자 가정 타격...지역경제까지 영향"

미국의 대표적 식품 지원 제도인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캘리포니아명 CalFresh)이 대규모 예산 삭감과 자격 요건 강화로 흔들리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식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와 로버트우드존슨재단(RWJF)이 지난 8일 공동 개최한 전국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지난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HR1, 이른바 '월 빅 뷰티풀 빌' 이후 SNAP 축소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보건 및 식품 안 전망 예산에서 약 1조 달러를 줄이고, SNAP 예산만 2034년까지 1870억 달러 삭감하도록 해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축소를 평가한다. SNAP은 저소득층이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현재 약 4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인 평균 월 수혜액은 188달러, 가구당 평균은 332달러로 한 끼당 약 1.5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제도 축소 영향으로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이미 300만 명이상이 혜택을 상실했으며, 향후 최대 100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지난해 7월 이후 약 30만 명이 프로그램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식품 지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약 550만 명이 캘프레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이 해당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전체 가구의 15%,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17%가 SNAP에 의존하는 등 지역별 편차

도 뚜렷하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연방 하원 선거구별 사회·경제 지표를 제공하는 '의회지역 건강 대시보드'의 SNAP 관련 신규 데이터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전국 평균 SNAP 참여율은 17.4%로, 6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식품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율이 절반에 달하는 곳도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SNAP 축소가 단순한 복지 축소를 넘어 공중보건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WJF의 기리다르 말리야 박사는 "SNAP은 단순한 식료품 지원이 아니라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며 "아동과 노인, 장애인, 퇴역군인들이 다음

기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 변화로 근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55~64세 저소득층과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근로 요건이 실제 고용 확대보다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작용해 수혜자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이민 단속 강화와 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로 자격이 있는 가정까지 신청을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정부의 재정 부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SNAP 행정비를 연방과 주가 절반씩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주정부 몫이 75%로 증가하며, 2027년부터는 일부 식

품 지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축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푸드뱅크 등 민간 지원 체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푸드뱅크가 SNAP 공백을 메우기에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경제적 파장 역시 적지 않다. SNAP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정뿐 아니라 지역 식료품점과 농가, 소상공인 매출과도 연결돼 있다. 연구에 따르면 SNAP 1달러는 지역경제에서 약 1.5~1.8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식품 지원 축소는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시애틀코리안데일리 SBS Washington 스포츠서울USA WOMAN'S haninsosik.com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광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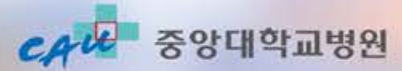
업소록 광고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2 가지 혜택

1 전자신문에 무료 광고 게재
MS Media Group에서 워싱턴주 한인들에게 매주 전달하고 있는 전자신문에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2 웹사이트 광고비 50% 할인 혜택
MS Media Group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온라인신문에 광고하시는 분들께 광고비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광고문의 206.779.5382 / E-mail: mediahankookweekly@gmail.com



휴람 - 중앙대학교병원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프로그램

2025.1.1. ~

휴람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휴람 고객을 위한 체류기간 내에 빠른 진료 연계 제공



기본검진



남성검진



여성검진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해외동포특별가 프로그램 혜택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람 기본 항목

프로그램	검사항목
종합검진 기본항목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안과(안압, 안저, 시력), 청력, 폐기능, 흉부촬영(전면, 측면), 심전도, 혈액형, 일반혈액,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전해질, 당뇨(공복시혈당, 당화혈색소), 매독, 에이즈, 종양표지자(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남], 난소암[여], 유방암[여], 고지혈증, 요산, 갑상선기능, 소변, 식생활평가, 류마티스인자,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액상자궁경부암검사[여], 유방촬영[여], 여성호르몬[여]

휴람 남성 검진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남성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1,071,000
휴람 정밀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뇌MRA, 심장초음파	1,836,000
휴람 VIP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심장초음파 +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비타민D, 골밀도 + 뇌MRI&뇌MRA, 동맥경화도, 남성호르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2,979,000
휴람 VVIP 검진 (2일간 진행)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심장초음파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관상동맥 CT + 비타민D, 골밀도, 동맥경화도, 남성호르몬 + 뇌, 심장 정밀혈액검사, PET-CT(암정밀검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4,622,550

휴람 여성 검진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여성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1,098,000
휴람 정밀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 뇌 MRA, 심장초음파	1,863,000
휴람 VIP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 심장초음파, 골밀도, 저선량 폐MDCT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 동맥경화도, 비타민D,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픽업서비스(서울시내)	3,204,000
휴람 VVIP 검진 (2일간 진행)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관상동맥 CT + 심장초음파, 골밀도, 저선량 폐MDCT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 동맥경화도, 비타민D,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 뇌, 심장 정밀혈액검사, PET-CT(암정밀검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4,847,550

휴람 특화 검진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뇌건강 검진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뇌정밀혈액) 경동맥초음파 + 뇌MRI & 뇌MRA + 알츠온 혈액검사 + 도파민 PET-CT	2,562,000
휴람 치매 검진	알츠온 혈액검사 + 뇌MRI & 뇌MRA & 해마 + 아밀로이드 PET-CT	2,230,000
휴람 심혈관 검진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심장 정밀혈액) + 심전도 + 동맥경화도 + 경동맥초음파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CT	903,000
휴람 유전자검사	뇌질환유전자5종, 심혈관 5종 유전자검사 ※ 치매/심혈관검진 첫 시행 시 필요	각 132,000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 숙박필요시 병원인근숙소 제공 - 제휴 혜택 특별가 제공

교육칼럼



민명기

eWay 학원 원장

공부, 언제 뭘 해야 하나

지금은 뉴욕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필자의 제자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다. 아들 녀석이 지금 4살인데, 부부가 일을 하니 아이를 낳는 시간에 어디엔가 맡겨야 하는데, 공부 위주의 탁아소가 좋은지 놀이가 주된 데이케어에 맡겨야 할지를 물어 왔다. 작년 이맘때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된 버지니아 대학 연구팀의 조기 교육에 대한 논문이 관심을 끈 바 있는데 생각이 나서 소개해 주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3-5세 시기에 수학, 영어 등 조기 교육을 받은 유아들의 대부분은 아홉살이 되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만 그 효과가 두드러져 천재 소리를 듣지만, 그 이후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때쯤이 되면 다른 아이들도 구구단이나 기초 읽기, 쓰기 와 같은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그 효과는 금방 나타나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로 3-5세 정도의 유아들에게는 한국에 서처럼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등의 조기 교육 보다는 오히려 그 시기에 발달되는 인성과 감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속

담에 “세 살 공부는 아홉 살까지만 간다”를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생의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정말 중요하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제 곧 긴 여름방학에 들어갈 것이고, 여름에 뭘 해야 할지에 대해 물어 오시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많다. 근래의 대학 입시에서, 대학에 원서를 내는 학생들이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올라가는 여름에 인턴십을 하는 것이 거의 ‘꼭 해야 할 일의 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횡행한다. 하지만, 우수한 인턴십이나 여름 프로그램들의 지원서 마감은 1월에 이미 마감되었고, 이름깨나 알려진 프로그램들이라면 늦어도 3월 말경에는 접수가 끝났다. 아직 이도 저도 계획이 없는 학생들은 마음이 급해지는 시기이다. 특히, 곧 봄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면 현재의 고교 주니어들은 사정없이 다가오는 시니어 때 닥치게 될 대학 입학 원서 제출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올 것이다. 때맞춰, 여름이 지나면 대입 원서 제출을 앞둔 고교 시니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주제로 다룬 시리즈를 시작한다. 다음 몇 주 동안에 걸쳐, 올 가을에 고교 시니어가 되는 학생들이 할 일들의 리스트를 소개하고 되도록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니 미리 참조하고 대비하시기 바란다. 오늘은 앞으로의 일정들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 드린다. 첫째, 가장 시급한 일은 조기 전형으로 원서를

제출할 학생들의 경우, 지원할 학교의 리스트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정한 경우도 있겠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아마 아직도 망설이는 경우가 반 이상은 훨씬 넘을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도 그저 어렵פות이 희망 대학만 있을 뿐이지, 자신의 성적이나 능력에 맞는 구체적인 그림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별로 시간이 없다. 아주 소수이지만, 조지아 테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같은 몇몇 학교들은 조기 전형 원서를 10월 중순에 마감하며, 대부분의 다른 명문 학교들은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이다. 11월 15일에 신입생 원서를 마감하는 우리 지역의 유턴은 그래도 익숙한 편이지만, 타주의 다른 학교들을 선택할 경우, 학교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인 깊고 넓은 탐색이 필요하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주변 환경, 날씨, 집과의 거리, 희망 전공을 제공하는지의 여부, 교수와 학생의 비율, 교수가 가르치는 수업의 비중, 과외 활동의 기회, 기숙사와 음식, 재학 중 인턴십의 기회, 졸업 후 취직 가능성,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 등록금과 제반 비용 등등 따져 볼 일들이 많다. 학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혹시 주변에 해당 학교 출신이나 재학생이 있다면 직접 물어 보고,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대학의 입학처에 문의

하면 될 것이다. 정말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대학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라면 최소한 버추얼 투어를 하는 것도 좋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재정 보조의 문제는 특히 중요하니 각 학교 재정 보조 사무실의 (Financial Aids Office) 웹사이트를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하면, 상당히 저렴한 학비로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명심할 일이다. 다음에는 해당 대학이 사용하는 조기 전형 모집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미국 대학의 조기 전형에는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 ED), 얼리 액션(Early Action, EA), 제한적 얼리 액션(Restricted Early Action, REA) 등의 세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ED는 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될 경우 꼭 등록을 해야 하는데, 컬럼비아, 유엔, 스티븐스키스와 듀크 등 대부분의 명문 사립 대학들이 사용한다. EA는 원하는 만큼의 대학에 지원 가능하며, 합격해도 반드시 등록할 의무는 없고, MIT나 칼텍 등이 사용한다. REA는 한 학교만 지원 가능하지만, 합격 시 꼭 동 대학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등의 소수의 최고 명문 학교들이 사용하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소개하기로 한다. (www.ewaybellev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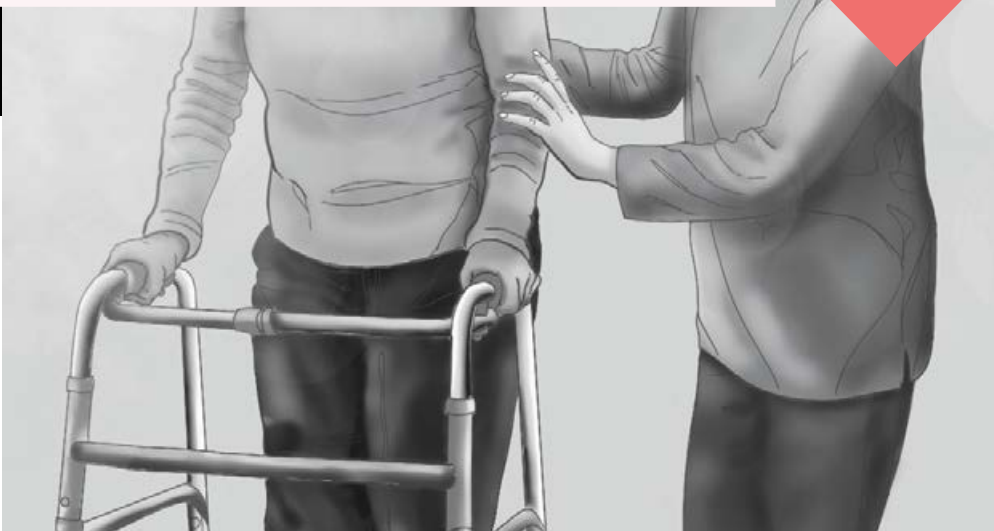


큰 뜻과 보람으로 일하기 원하십니까? 대한부인회 간병인(Caregiver) 모집!

경쟁력있는 임금 \$22.63-\$26.97

**좋은 베니핏 - 의료보험, 유급휴가
자유로운 근무 시간 - Full Time, Part Time
근무중 자동차 운행비 지급
경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KWA 본사와 지부에서 신청서 접수와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253)535-4202 / www.kwacares.org/careers**



〈타코마〉 실비아 리 (253)319-8646 sli@kwacares.org, 김혜연 (253)319-8652 hykim@kwacares.org
 〈린우드〉 리나 정 (425)790-3565, (253)302-0202 lchong@kwacares.org
 〈헤더럴웨이〉 이경주 (253)656-3458 klee@kwacares.org, 송영정 (253)656-3445 ysong@kwacares.org

미국 22개 주 '5월의 폭염'... 라스베이거스 화씨 103도, 데스밸리 117도

- ▶ 미 22개 주 5월 신기록 폭염 예고... 5천만 명이 90도, 1천 100만 명은 100도 이상 노출
- ▶ 60% 국토가 가뭄 상태... 콜로라도 96%, 유타 절반이 극심한 가뭄
- ▶ 중서부~동부는 평년보다 추워... 시카고·뉴욕은 주말 이후 다시 더워질 듯

5월 한가운데인데도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기록적 폭염이 미국 서부와 중남부 22개 주를 덮친다. 평년보다 훨씬 더 뜨거운 공기가 미국 본토 곳곳을 달구는 가운데, 광범위한 가뭄까지 겹쳐 산불과 물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 내에서 약 5천만 명이 화씨 90도(섭씨 약 32도) 이상의 기온을 경험하며, 그중 1천 100만 명은 화씨 100도(섭씨 약 38도)를 넘는 더위를 견뎌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강한 폭염은 인터마운틴웨스트(Intermountain West, 록키산맥과 시에라네바다 사이 내륙 지역)와 대평원(Plains), 남부에 집중된다.

데스밸리 117도·라스베이거스 103도... "7월이나 볼 만한 더위" 이번 주 예상되는 신기록 또는 동물 기록 기온은 그야말로 한여름을 떠올리게 한다. 라스베이거스는 월요일 화씨 103도,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는 월·화요일 102도, 캔자스주 위치타는 금요일에, 아이다호주 보이시는 화요일에 각각 95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솔트레이크시티는 화요일 94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는 금요일 91도가 예상된다. 특히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Death Valley) 인근에서는 월요일 화씨 117도(섭씨 약 47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은 차가운 해양 기류 덕분에 내륙만큼 극심한 더위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월요일 10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보통 7월이나 나타나는 수준의 더위다.

캘리포니아 기후 과학자 다니얼 스웨인(Daniel Swain) 박사는 서부 지역의 낮 기온과 밤 기온 모두 5월 중순 평균보다 훨씬 더 따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샌디에이고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은 "야외에서 일할 경우 반드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능한 한 그늘을 찾으라"고 경고했다.

이번 폭염은 약해진 제트기류로 인해 형성된 '일시적 열돔(transient heat dome)'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난 3월 미 서부에 기록적인 더위를 몰고 왔던 열돔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3월 열돔은 태평양에서 발생한 5,000마일 길이의 해양 폭염에 의해 강화됐다. ◆ 국토 60%가 가뭄... 콜로라도·유타에 산불·물 부족 비상 이번 폭염

의 위험성을 더 키우는 것은 광범위한 가뭄 상태다. 현재 미 본토의 약 60%가 가뭄을 겪고 있으며,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된다. 콜로라도주는 지난주 기준으로 주(州) 면적의 96%가 가뭄 영향권에 들었다. 늦봄에 내린 눈도 콜로라도강의 물 부족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타주는 면적의 약 60%가 4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극심한 가뭄(Extreme Drought)' 상태다.

두 주 모두 당분간 의미 있는 강수는 예보되어 있지 않으며, 이번 주에 신기록 기온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남부 지역은 광범위한 신기록 폭염은 피할 전망이다. 강수량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조지아주와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는 면적 전체가 가뭄 영향권에 들었고, 플로리다는 약 99%가 가뭄 상태다.

11일 이른 아침 기준으로 플로리다 마이애미 북서쪽 에버글레이즈(Everglades)에서는 4,800에이커(약 19km²) 규모의 산불이 진행 중이며, 진압률은 20%에 머물렀다. 목요일부터 토요일에는 신기록 폭염이 대평원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사진=신문사D] 폭염 5천만 명이 90도 넘는 더위 속으로...

예상된다. 네브래스카는 면적의 약 88%, 오클라호마는 81%, 캔자스는 60%가 이미 가뭄 상태인데, 여기에 폭염까지 더해질 경우 농작물 피해와 물 공급 문제가 가중될 우려가 크다. ◆ 반대로 동부는 4월처럼 추워... 주말 이후 급반전 미국 서부와 남부가 한여름 더위에 시달리는 동안, 중서부에서 동부 해안까지는 정반대로 평년보다 시원한 날씨가 이어진다. 지난 3~4월 미국 곳곳이 기록적인 따뜻한 봄을 보낸 것과 달리, 5월 들어서는 약 2억 명이 달하는 사람들이 평균 이하의 기온을 경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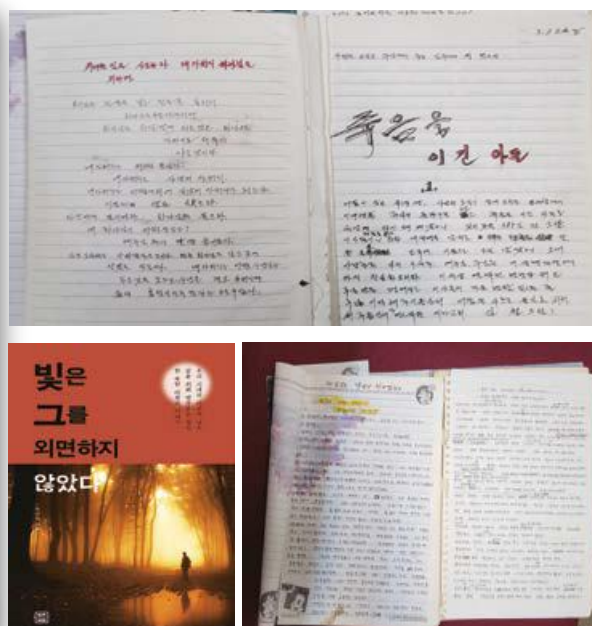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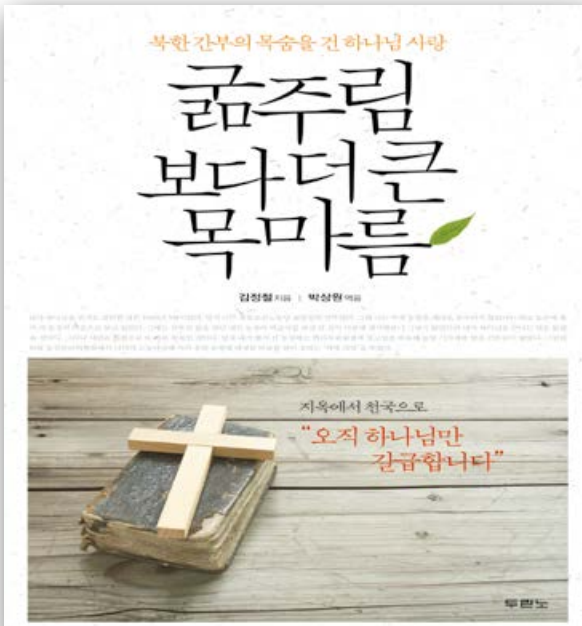
북부 지역에서는 늦서리와 결빙 현상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이런 쌀쌀한 날씨는 이번 주에도 중서부

에서 동부 해안까지 이어지며, 워싱턴 D.C.는 월요일 밤 기온이 화씨 40도대(섭씨 4~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동부의 찬 공기가 빠르게 물러나고 훨씬 더 따뜻한 공기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곧 한여름에 가까운 기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태평양 북서부 시애틀권은 이번 주 폭염 영향권에서는 비껴 있지만, 미 본토 전반의 극단적인 기상 양상은 올여름 폭염과 가뭄, 산불 시즌이 일찍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과 그 속편의 새 합본제작(\$5,000)에 공동제작자가 되어 주세요!

19년째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북녘의 동족들과 특별히 지하(비밀)교회와 성도님들을 돕고, 또, 탈북가족들과 특별히 청년대학생들에게 장학지원으로 통일선교사로 양육시키고 있는 저희 선교회가 이미 펴낸 아래의 두 책을 합본 제작으로 북한지하교회와 성도들의 실체를 더 넓게 힘차게 알리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후원자님 책에 표기).



DONATION INFO

Venmo: **won06danny**
Zelle: **4252758072**

Pay-Pal: **swp2019**

Check Order to **G.B.M.W**

1-425-775-7477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www.gideonbrothers.org

기드온 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지나 채

킹카운티 멘탈 헬스 카운슬러

늦게 핀 진달래꽃(1)

아하, 진달래꽃이 피었구나!
어느덧 30년 세월을 함께해 오던 집이다, 세 아이들이 국민학교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제각기 직장을 찾아서 독립해 나갈 때까지 살았던 집, 우리 가족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다.
처음 이 집으로 이사를 왔을 때만 해도 뒷마당도 앞마당도 그저 텅 빈 채 남겨져 있었다. 웅하고 삭막해 보이던 마당을 틈날 때마다 일구어 예쁜 꽃 묘종을 사다가 심고 친구들이 건네준 나무들을 심다 보니 땅을 150번 정도 파고 꽃과 나무를 심다 보니 이제는 꽃과 나무들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철쭉과 진달래, 사과나무, 보라색빛의 장미와 민트 허브, 오레가노, 로즈메리도 심었다.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하는 수많은 꽃들을 심으며 나는 매일 물을 주고 때맞춰 거름을 주면서 그리고 주문을 걸듯 꽃들에게 속삭였다. 예쁘게 자라렴! 예쁘게 자라렴!
그리고 아들과 남편은 뒷마당 한복판에 연못을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크고 작은 자갈들이 파도 파도 끝없이 흘러나왔고 그 많은 자갈들 때문에 땅을 파는 일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다.
땅을 파는 일은 어려웠지만 그때 나온 자갈들은 버리지 않고 화단 주위에 보기 좋게 쌓아두었다. 그러자 마치 처음부터 계획하고 디

자인한 것처럼 화단이 한결 멋지게 살아났다. 연못이 완성된 후에는 금붕어를 13마리를 사다가 연못에 넣었다. 붉은색의 금붕어, 머리만 하얀색의 금붕어, 까만 금붕어, 빨간색과 핑크색을 섞어 놓은 금붕어 등 처음 데려왔을 때에는 금붕어들은 작은 치어들이었다. 그런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제법 손바닥만한 크기로 자라나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은 혹시 “잉어 아니냐”라고 물어볼 정도가 되었다. 나무 묘목을 사다 심기도 하고 예쁜 꽃들을 위치를 디자인해 가며 정성껏 심었다. 덕분에 봄이 시작되면 우리 집 뒷정원에는 수많은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기지개를 편다.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기 전 그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나면 그야말로 우리 집 뒷동산은 “꽃동산”이 되었다.
4월이 되면 시애틀 북쪽의 툴립 농장에 각종 툴립이 만개가 되면서 장관을 이루는데 이때가 되면 이 예쁜 툴립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우리가족도 그때의 툴립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매년 툴립 나들이를 떠나곤 했는데 하지만 우리 집 뒷마당에 하양, 빨강, 노란 툴립이 활짝 피어나면 그 자체로 훌륭한 툴립 축제가 되어 굳이 멀리 관광을 떠나지 않아도 충분하였다.
여름이 오면 체리나무에서도 드문드문 체리가 열려(아니, 넉넉히 열려서 우리가족들 먹

기에는 딱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새들과 다람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여 우리가 체리를 수확하려 하면 이미 많은 체리가 사라져 버렸다.
뒷마당에 심어 놓은 딸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딸기 묘종을 사다 심은 지 2년이 되던 해 뒷마당은 딸기꽃들로 가득 덮였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온 동네 토끼와 다람쥐들이 다 작정이라도 한 듯이 몰려와 잘 익은 딸기들을 다 먹어치우고는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아하! 이곳이 재네들 간식 명당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 어쩌다 미처 발견치 못한 딸기 한 두 개를 찾아 입에 넣으면 그 달콤함에 취해 저절로 눈이 감길 정도였다.
두 집 건너에 한국인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살고 계셨었는데 어느 날 킁킁대며 자두 묘목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셨다. 할머니 댁에 자두가 하도 많이 열려 그 곁에 자라는 중간 크기의 자두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가지고 온 것이었다.
할머니가 가져다주신 자두나무를 앞마당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 심었다. 할머니 댁에서 우리 집으로 이사 온 자두나무는 물을 많이 주어도 기운 없이 시들거렸다.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마치 땀을 흘리는 것만 같았다. 가지마다

땀방울처럼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가만히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자두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손상이 수액 압력의 변화를 일으켜 나무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친구가 자기네 집 진달래가 너무 예쁘다며 예쁜 꽃을 함께 보자고 진달래나무를 캐다가 우리 집 뒷마당 정원에 심어 주었다. 진달래를 옮겨 심은 지 어느새 2년째가 되었는데 진달래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초록빛의 잎사귀만 겨우 매달려 있어 그저 살아 있는 것만 같았다. 특히 진달래는 뿌리가 예민한 꽃 종류라 옮겨 심는 과정에서 뿌리 일부가 손상되는데 이를 회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느라 생존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아 꽃을 피울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 집으로 이사 온 꽃들, 그리고 자두나무, 진달래 등을 정성껏 가꾸기를 세 번째 봄이 찾아왔다.
어느 날 앞마당 자두나무에 연분홍 꽃들이 마치 안개처럼 나무에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그 모습을 본 앞집에 사는 루마니아 아저씨가 “아이고, 자두가 탐스럽게 열리려면 3월 초순에 진작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라며 내일처럼 걱정을 해 주셨다.
(다음 호에 계속)

안정된 회사,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쉬어집니다.

- IRA / Roth IRA / 401(K) *
- 뮤추얼 펀드 / Brokerage Account *
- 평생연금 - Annuity **
- 은퇴계획 - Retirement Plans
- 상속계획 - Estate Planning
- 개인&비즈니스 생명보험 - Life Insurance for Personal & Business
- 간병보험 - Long Term Care
- 생명보험을 활용한 학자금 플랜 - College Funding using Life Insurance

* products offered through Registered of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and a New York Life Company.
**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The Million Dollar Round Table (MDRT), The Premier Associ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is recognized globally as the standard of excellence for life insurance sales performance in th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dustry.



178년 역사의 뉴욕라이프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김수현 (BILL "SUHYUN" KIM)

Registered Representative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Agent

Mobile 253 802 2550

*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investment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증권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종교칼럼

팔순 잔치와 책 출판 기념 예배



저자 나은혜

5월 9일 토요일 11시에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서 나은혜 팔순과 책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렸다. 아침 8시 30분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러시아 선교사님이 아침 일찍 오셔서 택시를 타고 지하철까지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에스더에 가려고 했더니 러시아 선교사님이 에스더까지 2만 원에 갈 수 있다고 하신다. 지하철까지 가려면 4,500원이 드는데 차라리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택시를 불러서 선금 2만 원을 내고 에스더까지 갔다. 우리는 그렇게 선금을 내고 가는 것을 몰랐다. 영등포까지 무거운 책을 든 가방을 싣고 너무 쉽게 갔다. 어젯밤에 에스더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이곳에서 잠을 잔 요나 씨 내외가 아내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돕고 남편은 당산역에서 에스더까지 사람들을 픽업해 주는 일을 자원해서 봉사해 주어서 너무 감사했다.

많은 사람이 당산역에 와서 이 자동차를 타고 올 수가 있었다. 에바다(가명) 씨 내외와 드보라 씨는 이층 식당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잔치 준비를 하느라고 예배에 참석도 못하였다.

외사촌 동생은 일찍 와서 방명록 노트에 오는 사람들 이름을 적고 브라질에서 가지고

온 프로폴리스를 한 병씩 나누어드렸고 애 쓰고 수고한 사람들과 후원자분들께는 책을 한 권씩 선물을 드렸고 오시는 탈북자분들과 천문선교회 사역자분들께는 후원금 24만 원씩 드렸다. 이곳에서 직접 드리면 500원의 은행 수수료가 절약된다.

러시아 선교사님이 10시 50분에 찬송을 인도하고 음악 선생이셨던 분이 자원해서 반주를 해 주시고, 11시 정각에 예배를 시작했다. 11시 20분에 에스더의 대표이신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했는데 순서가 일찍 끝나서 축사를 하기로 하신 홀리 내이션스교회의 양 목사님이 먼저 축사를 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오시니 축사를 서둘러 끝내시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다. 이 목사님은 에스더의 대표인데 매일 나라를 위한 철야기도회를 새벽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스케줄이 바쁜 분이므로 이렇게 오신 것이 너무 감사했다. 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당신들 한 사람들, 특별히 주의 길을 가는 당신들은 메뚜기가 아니라 큰 용사들이다. “나는 주님이 택하신 귀하고 큰 용사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복한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셨으니 말을 잘하고 용기를 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란다 용기를 주셨다.

오늘의 모임은 천문선교회 사역자들(세계 선교사님들과 탈북민 목회자들)과 한국에 계신 후원자들의 모임으로 한국에 계신 천

문선교회 사역자들 30여 명이 음식을 한 가지씩 해 오는 파트락으로 하였다.

과거에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에 내 칠순 잔치를 에스더에서 주최해서 했었고 잔치비용은 아들과 딸이 내었고 잔치에 들어오는 모든 축의금을 에스더에 드린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6년 이상 후원하는 천문선교회 회원들이 파트락으로 하기로 하고 그동안 얼굴도 모르고 후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번에 얼굴을 한 번 보기로 하였다. 이번에 20년 전에 썼던 내 소설책 두 권을 영어 번역을 덧붙여 이중언어로 발간하고 아마존과 교보문고와 부끄끄(Bookk) 출판사에 등록해서 원하는 대로 출판하고 팔기로 등록을 했다.

이제껏 성극 각본과 많은 책을 출판했지만 출판기념회를 안 했는데 이번에 한 번 팔순 축하와 겸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에스더의 이용희 목사님은 우리 내외가 존경하는 총각 교수님과 목사님이시고 나라와 결혼하신 천국의 애국자시다. 전 재산을 바쳐서 동성애를 막는 광고를 내시고 “거룩한 방과제”를 만들어 기독교 윤리가 무너지 않게 애쓰시는 그 수고가 너무 눈물겹고 안타깝다.

우리 내외가 한국에서 살려고 이중국적을 내고 3년 동안 살 때에 에스더 안의 큰터 교회에서 협동목사를 했고 에스더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했고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때 성경공부에 동참했던 분들이 계속 서로 존경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천국까지 같이 갈 것이다. 이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내가 감사 인

사를 할 순서가 되어 먼저 “탈북자 혜성의 증언”과 “용서의 참사랑”의 AI가 만든 주제를 영상과 함께 틀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 사람들이 나은혜 사모님이 소설도 쓰셨느냐고 감탄을 하셨다. 이번에 한국어와 영어로 소설이 두 권 나왔는데 20년 전에 썼던 소설로 고 윤요한 목사님과 세 모녀가 중국 감옥에서 고생하셨고 세 모녀를 큰돈을 들여서 유엔 난민으로 만들어 탈북시켜서 미국으로 오게 하고 그때의 고향선교회의 초대 회장인 나균용 목사님이 공항에 나가서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시 19세의 순진한 소녀가 미국에 와서 부활절을 맞아 최초로 우리 타코마연합장로교회 예배에서 간증을 했는데 내가 크게 은혜받고 그대로 소설로 써 놓았던 책을 지금 한국어와 영어로 발간한 것은 미국의 교회들의 청소년들이 읽고 큰 은혜를 받고 남북통일의 비전을 갖기를 바라고 한국에서는 영어를 공부하기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 이윤이 생긴다면 그 수익금은 온전히 칼로스와 천문선교회의 선교비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축하 잔치를 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꽃다발과 화분과 케이크와 떡과 음료수와 미역국 등으로 이층에서 너무 성대하고 아름답게 잔치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람을 느낀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소서. 진심으로 기도를 올린다.



레이븐 경비회사/ 레이븐 공인탐정사

현재 호텔/모텔/상가/건물/빌딩 관리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사 · 형사소송 사건증거수집업무	배우자	종업원
개인 신원조회업무	학력	범죄

레이븐 공인탐정사에서는 24시간안에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못 찾을 시 의뢰비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레이븐경비회사로 연락주세요.
Tel: 253.353.3663 / Web : WFPDICI.com

RAVEN LEGAL TASK FORCE
RAVEN SECURITY ENFORCEMENT AGENCY #858
ARMED SECURITY PRINCIPAL #79760
RAVEN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2037
RAVEN ARMED PRIVATE INVESTIGATOR PRINCIPAL #4036

휴람칼럼

무지외반증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엄지발가락 변형 질환으로 치료를 미루면 발 전체까지 변형되어 걸음걸이도 틀어지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족부센터 이원우 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고 발 안쪽 뼈가 튀어나오는 무지외반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이 심해지는 진행성 질환이다. 초기에는 돌출 부위의 통증과 발적, 굳은살 정도에 그치지 않지만 방치하면 두 번째 발가락까지 변형되고 지간신경증, 무릎과 골반의 불균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신발을 신기 어려울 때, 변형이 계속 진행될 때, 보존 치료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과거 무지외반증 수술은 피부를 5~10cm가량 절개하고 뼈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조직 손상이 커 회복이 오래 걸렸다. 이후 등장한 2~3세대 최소침습 수술은 절개 범위는 줄었지만 고정력이 약해 재발 위험이 있고 보행하기까지 회복 시간이 길었다. 반면 최근 학계에서 나온 4세대 최소 절개 교정술(MICA)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무지외반증 수술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족부센터 이원우 과장은 “4세대 최소 절개 수술은 약 2mm 내외의 작은 구멍을 통해 미세 절삭기



를 삽입해 뼈를 절골한 뒤, 특수 나사로 이중 고정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절개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개방형 수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견고한 고정력을 확보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무지외반증은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휘는 것뿐만 아니라 뼈 자체가 안쪽으로 회전하는 변형을 동반한다. 4세대 최소 절개 수술은 실시간 영상 장치를 통해 뼈의 회전 변형까지 정밀하게 잡아낸다. 이는 수술 후 발의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무지외반증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발률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족부센터 이원우 과장은 “무지외반증은 매우 흔하지만 기존 수술 방식의 긴 회복 기간, 통증으로 많은 환자가 수술을 망설였었다. 4세대 최소 절개 수술은 2~3mm의 작은 구멍 3~4개만으로 수술하므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통증 및 합병증을 크게 줄였다”며 “환자는 수술 다음 날부터 특수 신발을 착용하고 보행이 가능하며 입원 기간도 2~3일 정도로 짧다”고 강조했다. 이원우 과장은 “4세대 최소 절개 수술은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수술법이기 때문에 수

술 전 정밀한 방사선 분석은 물론 해당 기법에 대해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족부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지외반증 치료 미룰수록, 발 전체 변형에 걸음걸이도 틀어진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 업무 에스더 나 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 선정 - 진료 예약 □ 치료 □ 사후 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206-779-5382(에스더 나 이사)



김용석 (Bruce Yongsuk Kim)

Agent,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Cell. (206) 371-4620

Email. ykim13@ft.newyorklife.com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중서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중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SMRU1877550 ©2017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51 Madison Avenue, NY, NY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도나 안내서는
필요없습니다.

평생연금* 은퇴계획 상속계획
생명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가장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은퇴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Member FDIC  SBA Preferred Lender



최고의 금융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Bank of Hope SBA 대출*

- SBA 자체 승인 대출기관(PLP Lender)으로 신속한 결정
- 장기 융자기간 제공
(부동산 융자 25년, 비즈니스 융자 10년까지)
- 낮은 다운 페이먼트 부담
(부동산 융자의 경우 최저10%)
-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닌 SBA 대출 기간 중 분할 상환 스케줄 융자
-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는 클로징 비용 대출 가능

*모든 관련 조건 및 약관은 융자진행 및 신용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ank of Hope 상업 융자

- 상업융자
 - 상가 & 아파트 구입 및 재융자
- 텀 론(Term Loan) 특징
 - 최장 7년간 분할 상환
 - 융자 기간 내 융자금 전액 상환을 위한 월 고정 납부금 (원금과 이자 합산)
 - 고객에게 융자금 전액 일시에 제공
 - 변동 또는 고정 이자율 적용
- 상업 부동산 융자
 - 상업 부동산 구입 또는 재융자가 필요한 비즈니스 오너에게 가장 적합한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봉수(Brian Kang) Business Banking 본부장 / SVP & PNW Business Banking Regional Director
 Seattle Office (425) 921-1098 Portland Office Office (971) 801-6275

Top 2% SBA Lender in the U.S. by Volume[‡]



스캔 후 자세히 보기



[‡] Source: SBA national lender rankings for Fiscal Year ended 09/30/2024.